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현대소설의 한국어교육 제재화 방안과
교수학습 방법연구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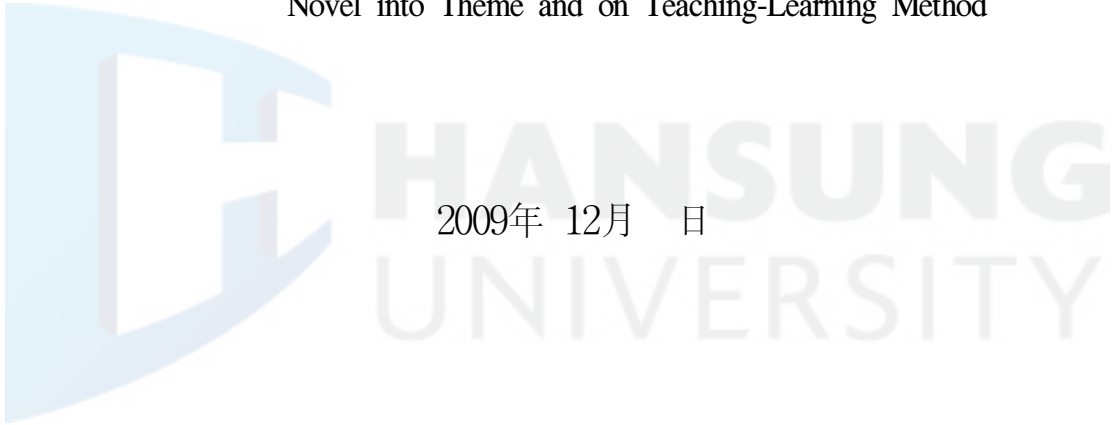
金 陽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東煥

현대소설의 한국어교육 제재화 방안과
교수학습 방법연구

A Study on the Scheme to mak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Modern
Novel into Theme and on Teaching-Learning Method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stylized blue 'H' shape. A large, light gray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in English, 'HANSUNG UNIVERSITY',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金 陽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東煥

현대소설의 한국어교육 제재화 방안과
교수학습 방법연구

A Study on the Scheme to mak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Modern
Novel into Theme and on Teaching-Learning Method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金 陽 淑

金陽淑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II. 제재화의 근거로서의 국어교육과정 검토	10
1. 국어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체계	10
2. 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제재	19
III. 제재화의 두 방향	24
1. 제재의 위계화	24
1) 제재로서의 적절성 판단	24
2) 급별 위계화 안	30
2. 성취기준의 체계화	35
1) 수평적 계열화	35
2) 수직적 계열화	47
IV. 제재별 교수학습 방법 사례	52
1. 초급의 경우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52
1) 언어교육 내용 설정	52
2) 문학교육 내용 설정	55
3) 문화교육 내용 설정	56
4) 실제 단원 구성	58
2. 중급의 경우 : 「기억속의 들꽃」	66
1) 언어교육 내용 설정	67
2) 문학교육 내용 설정	69

3) 문화교육 내용 설정	72
4) 실제 단위 구성	74
 3. 고급의 경우 : 「그 여자네 집」	83
1) 언어교육 내용 설정	84
2) 문학교육 내용 설정	85
3) 문화교육 내용 설정	87
4) 실제 단위 구성	89
 V. 결 론	96
 【참고문헌】	99
 【부 록】	103
 ABSTRACT	111

표 차례

<표 1> 각 대학 부설 어학원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	11
<표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교육내용 체계	15
<표 3> 국어 교육 목표	17
<표 4> 문학 교육 목표	17
<표 5>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 작품	21
<표 6> 교과서 수록 작품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적절성 검토	28
<표 7>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제재	34
<표 8> 듣기 영역 체계	38
<표 9> 말하기 영역 체계	40
<표 10> 읽기 영역 체계	42
<표 11> 쓰기 영역 체계	44
<표 12> 문학 영역 체계	45
<표 13> 문화 영역 체계	47
<표 14> 한국어 내용 체계 분류	48
<표 15> 작품의 주제 및 내용	5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있어 언어와 문화습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범주나 내용체계 등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학습자가 한국어 실력에 맞지 않는 문학 작품을 접했을 경우 오히려 한국어 습득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문학교육을 설계할 경우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단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의 위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요목의 설정이다.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텍스트 위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기준 및 위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도되지 않았던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현행 국어교육과정을 원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예비 대학(원)생인 성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유학생의 경우 언어활동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활동 능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비문학 읽기 텍스트 및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들에게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언어자료로서의 문학, 문화로서의 문학, 문학자체로서의 문학 능력을 키워준다면, 대학(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양 및 전공과목 관련 읽기 텍스트나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력, 발표 및 토론 등의 말하기 능력이나 리포트, 논문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쓰기 능력 등 통합적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언어 자료로 삼아 다양하고 흥미 있는 언어활동을 수행하고 작품 속에 담긴 한국적 문화 요소들을 향유하며, 더 나아가 문학을 문학 자체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감동을 느낀다면 성공적인 유학생들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위상은 언어교육의 보조 자료나 문화교육의 한 요소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문학을 주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언어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기존 한국어교육의 기능 및 실용중심 교육의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문학을 토대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민현식(1996)은 텍스트언어학과 문체론이 언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어교육과정의 중, 고급 과정에서 문예물의 강독을 다루되 신화, 전설, 전래 동화, 고전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현대 문학 작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엄선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또한 국어 문화론의 연구를 위해 주제별 소재별 자료 정리가 중요한 과제임도 아울러 제안하고 있다.¹⁾

우한용(2000)은 문학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설이 풍속과 관습의 이해, 문화적 원형의 이해를 가능케 하므로 한국어교육의 제재로 유용하며, 소설 언어는 기본 어휘 목록자료, 문형 추출, 화법의 전형, 문체 효과의 교육 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소설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²⁾

윤여탁(1999)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위상과 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인 문학적 언어활동이 한국어 학습에 활용될 수 있고,

1)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연구』 7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 우한용(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p 27-84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이나 고급스런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³⁾

황인교(2005)는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이 체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문학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가능태를 언어, 문화, 문학, 인간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문학교육을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으로 나누어 교과 과정, 목표, 내용,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학습자의 요구와 실제에 연결하여 언어모델, 문화모델, 인간성장 모델을 논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서의 포괄적인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⁴⁾

이런 논의는 시나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으로서 언어교육의 시각에서 한국문학을 논의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좌표를 분명히 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색하고, 이론과 실재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후 문학교육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렇게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관한 논의는 문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문학의 필요성 및 효용성, 문학교육의 위계화와 텍스트 선정에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⁵⁾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의 또 다른 축은 국어학과 한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마련된 한국어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전공자와 한국어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한국어교육 현장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 연구자들의 특징은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성희(1999)는 설화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와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음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지닌 설화들 중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흥미 있는 이야기를 교재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문학교육을 활용한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⁶⁾

김해옥(2005)은 문학작품을 문화교육 자료로 활용한 기존 연구들이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접목시킨 만족할만한 방안을 구체화 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문학작

3)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p138

4) 김대행(2000),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p 22-35

5) 황인교(2005),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6)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품 속의 어휘를 통한 언어와 문화의 병행적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에 기초하여 문화 내용 중 한국의 현대와 전통 주거 문화를 학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내용을 다룬 작품을 통해 한국의 주거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 안을 제시하였다.⁷⁾

이 외에도 장르와 실제 수업 방안을 고려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설화, 소설, 시, 수필, 전래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지만 문학 자체의 교육이기 보다는 한국 문화 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의 효용성을 내세우며 수업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안을 제시하는 등 문학교육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특징은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연구의 큰 흐름을 이룬다.⁸⁾

문학텍스트 선정에 관한 연구에서 김대행(2000)은 초·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5C 기준에 맞추어 한국어 문학교육의 작품 선정의 예를 보였고,⁹⁾ 윤여탁(2007)은 한국어교육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현대문학 정전 목록을 제안하였다.¹⁰⁾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작품 설문조사 결과 현대시 고빈도 작품으로는 진달래꽃, 꽃, 서시, 고빈도 작가는 김소월, 김춘수, 윤동주, 서정주로 조사되었고, 현대소설 고빈도 작품으로는 소나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고빈도 작가는 황순원, 이문열로 조사 되었다.¹¹⁾ 이에 관련된 연구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방향성을 보이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정기준 및 분류 방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이어서 진전된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¹²⁾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 윤영(1999)은 한국 현대 단편소설을 한국어교육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서의 문학 텍스트의 활용 방안을 황순원의 ‘소나기’를 제재로 삼아 제시하였다.¹³⁾

7) 김혜옥(2005), 『문학교육과 어휘교육』, 국학자료원.

8) 황인교(2005),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p284.

9) 김대행, 앞의 논문, p.22

10)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한국문화사.

11) 윤여탁, 앞의 책, p.119-140, 참조

12) 황인교(2005), 「문학교육의 연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13) 윤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서연(2001)은 외국어 사용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문학 텍스트의 선정 기준을 마련, 시문학 작품을 분류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으로 언어 내적인 측면과 언어 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문학교과서에 있는 시작품을 분류하였으나, 자료 제시의 차원에 그치고 교육적 활용에 대한 접근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¹⁴⁾

주은정(2002)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초급 단계에서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흥미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위주의 다양한 동화를 예와 실례 ‘콩쥐팍쥐’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학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¹⁵⁾

박청(2002)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소설 교육 방안으로 현대 소설 작품을 선정하여 언어 사용 능력이 고급 이상인 학습자들에게 문학 작품에 담긴 문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 작품에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목적으로 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⁶⁾

안경희(2003)는 수필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학문적인 의의를 살피고, 중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필 작품을 선정해 교수-학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급자 수준, 작품의 주제, 작품을 통한 언어교육의 교수-학습을 고려하여 수필 ‘토요일’을 선정하여 실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¹⁷⁾

조옥영(2004)은 초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며 소설을 언어자료나 문화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소설 작품 자체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에게 한국 소설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문학적 감상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의 현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소설 ‘하나코는 없다’를 선정해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⁸⁾

나정선(2008)은 언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이 독해 능력만을 향상시켜줄 뿐 의사소통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문학에서 취급되는 문화는 과거의 문화이고, 학습자에게 어려움과 새 어휘에 대한 부담감만 줄 뿐이라는 일부 학자의 부정적인 견해로

14) 홍서연(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분류방안」,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주은정(2002),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박청(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안경희(2003), 「수필을 통한 한국어교육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조옥영(2004), 「초급단계 학습자를 위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해 문학작품이 실제적이고 비중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되어 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문학작품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위해서 문학 작품의 한국어 교육적 효용성과 문학 작품 목록의 선정 원리를 논의한 후에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한국어 문학교육을 위한 문학 작품 목록을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19)

신윤경(2008)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있는 5차에서 7차까지 중·고등학교 및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 수필과 소설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선정하고 실제 언어기능 및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20)

신주철(2006)은 문학 작품이 언어 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첫째, 언어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이다. 즉 대부분 한국어교육이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일상의 표현에 중점을 둠으로써 다소 무미건조하고 지루함을 준다면, 문학작품을 통한 교육은 새로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것은 문학 작품이 상황과 행위의 구체성을 감지하고 있거나 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능동적으로 상상하고 재구성 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학작품은 소설은 물론이고 많은 시의 경우에서도 담화 맥락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은 어휘, 문법, 통사구조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담론의 단위이다. 즉 언어 교육에서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대부분의 문법 설명이 문장의 차원에서 그치는 반면, 문학 텍스트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담론을 기본적인 언어 단위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시, 소설, 시조21)의 실제 수업 사례를 제시했다.22)

윤여탁(2007)은 그동안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자료로 엮어 책으로 출간하여, 한국어교육학의 위상과 나라별 한국어 문학교육현황, 한국문학작품의 교수-학습 등 문학교육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어 교사에게 있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23)

김동환(2008)은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

19)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 시는 김소월 「진달래꽃」, 심훈 「그날이 오면」, 소설은 하근찬 「수난시대」, 시조는 정몽주 「이름이 죽고 죽어」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22) 신주철(200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3)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 한국 문학교육』, 한국문화사.

의를 시도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을 ‘문화를 통한 교육’과 ‘문화 자체의 교육’으로 크게 나누면서, 그 교육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로서 텍스트를 선정해야 할 때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대표성 외에 ‘문화적 공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즉 외국인 학습자의 모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공유된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라는 의미에서 ‘공유 텍스트’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설정한 것은, 자국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웠거나 독서를 통해 경험했을 요소들과 친연성이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 한국어 텍스트가 주어진다면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공유 텍스트에 대한 접근은 크게 한국어생활 텍스트, 한국어문화 텍스트, 한국어예술 텍스트로 보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 세계적 광포설화인 ‘장자못 설화’를 텍스트로 삼아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24) 김동환(2009)은 이어 보다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방법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보편적 서사 모티프인 ‘금기’ 모티프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설화 텍스트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이야기 만들기’라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능력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5)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어교육현장에서 문학작품교육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연구자들은 대체로 각종 국어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학텍스트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정방식의 타당성, 한국어교육에서의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작품을 폭넓게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으로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학을 단순히 문화를 가르치는 보조 수단이 아닌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통합적 활동으로서의 교수-학습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김동환(2008),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31집, 국어교육학회.

25) 김동환(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 연구 35집, 국어교육학회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으로의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에서 학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제재로 언어자료가 가장 풍부하게 내포된 소설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발상을 설명하자면 이런 사례를 들 수 있다. 소설의 특정 부분이나 전체를 통해 한국의 언어예절에 대해 학습자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한국에서는 높임표현이 왜 발달했는지, 윗사람과 대화할 때의 상황과 아랫사람과의 상황, 친구, 부모 등 사회적 관계 및 가정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다른 지 등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는 낯선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언어자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대화할 때의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외국인에게는 힘든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배우고 읽고 쓰기에 능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나 사고를 알아야 하는 것과 통하는 일이다. 소설에는 이런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가 녹아 있어 외국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을 구체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앞서 연구사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제재화하여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할 뿐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아무래도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체계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단계에서 이 논의가 주목한 바는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의 연관성이었다. 차별성도 많지만 태생적으로는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영역의 관계라고 할 때, 상호작용이 가능하리라 본 것이다.

특히 국어교육과정은 오랜 기간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눈을 돌려 볼 수 있는 범주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국어교육과정에서 하나의 통로를 발견하고자 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후 논의에서는 우선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국어과 공통 교육과정인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 간의 교육과정 체계 속에 놓여 있는 소설을 제재화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II장에서는 제재화의 근거로서의 국어교육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중 먼저 국어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내용의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 텍스트를 살펴 가려내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음 III장에서는 교과서 소재 소설 텍스트 중에서 한국어교육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텍스트를 위계와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다. 이때의 기준은 언어자료로서의 효용성, 문화적 요소의 내재성, 문학 자체로서의 가치의 세 범주가 될 것이다.²⁶⁾

국어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중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언어자료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과정과 문학과 관련된 내용체계를 재정립 할 것이다.

교과서에 실린 소설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적합하다고 선별된 소설을 급별로 위계화를 하고, 교육내용 체계를 다시 한 번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체계로 전환하여 초·중·고급에 맞게 계열화작업을 하고나면 마지막 IV장에서는 초급·중급·고급으로 선별된 작품 중 초급 한 편, 중급 한 편, 고급 한 편 씩 선정하여 첫째, 문학과 일상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언어활동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둘째, 작품 속에 드러나는 문화적 요소의 추출과 그 교수 방향을 모색하고 셋째, 문학 자체로서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한 교수요목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26) 이, 세 가지 범주에 대한 발상을 얻는데 다음 논의들을 참조하였다.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동환(2008), 앞의 논문

Ⅱ. 제재화의 근거로서의 국어교육과정 검토

1. 국어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체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작품은 자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선정된 작품이므로 학습 대상이 외국인은 아니다. 그러나 문학이 언어로 쓰여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이 중요한 학습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보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문학작품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언어 교육은 궁극적으로 언어의 본질에 입각한 활동과 탐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문학 능력을 통한 ‘인간다움’의 성취라는, 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문학작품 속에서 문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풍부한 언어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문학은 또한 보편성을 갖는다. 어느 나라에나 시,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 장르가 있고, 사랑, 지혜, 우정, 권선징악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 작품에 담겨 있는 생활 문화와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을 통해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적 보편성과 주제적 보편성, 문화적 보편성을 가진 문학작품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낯선 문화와 언어를 문학을 통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은 물론 문화 능력과 문학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어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학교육 중 소설장르에서는 어떤 작품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각 대학의 어학원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화여대의 경우 문학작품이 처음 실리는 교재가 3급 12과 외국 시 ‘가지 않는 길’이 실려 있고 4급부터는 1과에서 10과에 이르기까지 각 과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동화와 고전소설이 실려 있다. 5급 3과에 단군왕검 신화가, 10과에서는 피천득의 수필 <인연>에 대한 글과 함께 사물놀이에 대한 설명문이 실려 있다.

다음 연세대의 경우 유일하게 중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수업을 선택으

로 들을 수 있게 편성하였고, 4급부터 읽기 자료로 ‘문화해설’ 코너를 마련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초급 과정인 2급 19과에서 짧은 전래동화를 실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였고, 3급부터 5급까지 전래동화와 속담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급 12과에서 속담을 소개하고 10과에서 처음으로 전래동화 ‘흑부리 영감님’을 시작으로 4급, 5급, 6급에 걸쳐 속담, 동화, 고전소설, 극본까지 문학 장르를 골고루 소개하고 있다.

<표 1> 각 대학의 어학원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학작품

이화여대	가지 않는 길, 사이좋은 의형제, 춘향전, 흥부와 놀부,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심청전, 콩쥐 팥쥐, 한석봉, 금도끼은도끼, 단군왕검, 인연, 사물놀이
연세대	사랑하는 나의 연사들, 서편제, 매잡이, 수난이대, B사감과 러브레터, 소나기, 메밀꽃 필 무렵,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빈치, 봄봄, 날개, 금홍아 금홍아, 삼포로 가는 길, 한계령
경희대	꿈이 뭐라고 했어, 설마 꿈이 사람이 됐을까, 단군신화,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은 노래 소리 들리려나, 파랑새와 들쥐이야기, 잃어버린 돼지
성균관대	흑부리 영감님, 단군신화, 옛날이야기, 말 한마디로 색시를 얻은 총각, 춘향전, 무서운 이야기, 여우와 세 개의 주머니, 숲속의 공주님
서울대	단군이야기, 임궫정 이야기, 아리랑, 흥부와 놀부, 시와 노래

분석 결과 이화여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어 중급 이상의 교재부터 문학작품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군신화’의 예만 보더라도 이대에서는 5급에, 경희대는 3급에, 성균관대에서는 4급과 5급에 실는 등 각 어학원마다 통일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초급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고급 과정의 학습 내용이 다르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고, 고급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대부분은 중등 및 고등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기관별로 문학작품의

목록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문학 작품들을 의무적으로 배운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 사람이라면 개인의 독서량이나 취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도 모든 문학작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정해진 학습 시간에 한국어 영역의 한 부분인 문학작품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문학작품 중에서도 한국어 학습자인 외국인에게도 유용한 문학작품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학습 목적별로 통합적인 문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어교육계에서는 아직 통일된 문학교육에 대한 교육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다.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출간한 한국어 교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과정 목표, 교과과정 목표, 급별 목표 등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계에서도 통일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체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학교육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것의 결과는 교육목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문학교육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이 온전하게 조직, 운영될 수 없다. 올바른 목표인식이 서지 않으면 문학 내용의 선정이나 구체적 지도에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과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교육 대상과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성격과 요구,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절대적인 비중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²⁸⁾

한국어 문학교육을 통한 외국인 학습자의 최종 목표도 국어과 문학교육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학습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고 문학 목적 아래 학습 목적별로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문학 수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중 어느

27) 최현섭 외(1996),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p.361-362

28) 성기철(1998),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p.17-48

한쪽에 비중을 둔다기보다는 두 학문을 통해 올바른 문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면 목표성취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인지적 교육내용과 정의적 교육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에 이것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올바른 언어 지식과, 언어사용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수용하고 창작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과 목표는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서의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과 문화 능력은 물론 작품을 수용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작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한국어교육목표와도 부합한다.

인지적 교육내용은 국어지식과 언어 기능 요인이, 정의적 교육내용에는 국어사용 의 태도 요인에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언어활동, 언어, 문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인지적 향상을 위해 국어 자료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대상이 자국민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목표와 많은 부분에서 상관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문화·문학 과정이 제시되어 있고,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본 연구의 목표와 같다. 국어과의 이러한 목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교육과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어과 문학 과목은 크게 개인의 문학능력 신장과 문학 문화 발전으로 모아진다. 이는 문학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일 뿐 아니라 포괄적인 국어 문화 현상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들었는데 이는 잘 계획하고 조직화된 경험이 문학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문학과목의 목표는 문학 이론, 문학사 등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수용과 창작 원리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학 활동은 ‘이해와 감상’을 넘어서 ‘수용과 창작’의 단계에 이른다. 이는 문학은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주체적인 수용에 의한 창작으로 존

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문학교육의 핵심 목표인 셈이다.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해의 과정을 거쳐 표현을 하듯이 문학작품의 접근 또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단계에서 각자의 스키마를 이용한 능동적인 수용과 상상력이 동원된 창의적 표현이 바로 문학교육이 국어 활동의 기본 틀을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활동에서의 문화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화 요소가 가장 현저하게 작용하는 영역으로서 문학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국어과 문학과목 목표에 제시된 것처럼 문학적 지식을 포함한 문학 활동과 언어활동, 그리고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역은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교육과정에 있는 문학의 여러 장르 중 소설텍스트를 선정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문학작품의 감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수행 단계에 교육적 장치로 다루어지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문학 감상의 제재에 접근하는 방식과 교과로서의 문학제재에 접근하는 방식은 같지 않다. 교육적 제재로서의 문학작품은 교육과정에서 밝힌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감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과로서의 문학 제재의 위계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밝힌 교과와 관련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기본공통과정 안에서 국어과가 공통적으로 도달할 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수준으로서의 목표가 학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목표는 동일하되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자료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지도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관한 태도’의 학습이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하였는데 그 특징은 창작 교육을 강조하고, 문학 지식과 이론의 적용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본질 범주의 교육내용은 문학의 특성, 문학의 갈래, 한국 문학의 특징,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하위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태도 범주는 흥미나 동기 유발에서 사

회적 습관 형성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학년별 내용은 내용 자체의 난이도, 텍스트 등을 고려하고, 계열성과 반복성을 강조하여 배열하였다.

가. 내용체계²⁹⁾

<표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교육내용 체계

영역	내용		
듣기	• 듣기의 본질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 듣기의 원리 -청각적 식별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 듣기의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듣기의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정서를 표현하는 말 듣기 -설득하는 말 듣기 -친교의 말 듣기		
말하기	• 말하기의 본질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 말하기의 원리 -발성과 발음 -내용과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	• 말하기의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말하기의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 -정서를 표현하는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친교의 말하기		
읽기	• 읽기의 본질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 읽기의 원리 -낱말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 읽기의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읽기의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정서를 표현하는 글 읽기 -설득하는 글 읽기 -친교의 글 읽기		

29) 교육부(1998),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쓰 기	• 쓰기의 본질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 쓰기의 원리 -글씨 쓰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 -컴퓨터로 글쓰기	• 쓰기의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쓰기의 실체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정서 표현의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친교의 글쓰기		

문 학	• 문학의 본질 -문학의 특성 -문학의 갈래 -한국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사적 전개	• 문학의 수용과 창작 -작품의 미적 구조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학의 양상 -문학의 창작	• 문학의 대한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 -시(동시) -희곡(극본) -소설(동화, 이야기) -수필		

이상과 같이 내용체계를 구성할 때 취한 기본 관점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교육활동은 각 영역의 본질, 원리, 태도 범주의 교육내용과 실제 범주의 교육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의도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내용체계를 구조화 하였다.³⁰⁾

나) 국어교육과정

세계 여러 나라가 교과과정에서 보편적인 민족 정서가 전수, 형성 되듯 우리나라 또한 공교육의 과정에서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가 나타난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보편성과 관련한 문학교육의 기준은 국어교육과정의 문학교육 목표와 내용이 가장 체계적이고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 또한 그 목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어교육과정에서의 문화·문학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제 7차 교육과정의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년별 내용체계는 <자료 1>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3> 국어교육 목표

초등학교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중 학 교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교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표 4> 문학교육 목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위에서 제시한 국어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 교육에서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작 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바람직한 텍스트로 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의 문학 텍스트들이 모두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문학교육에 적합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위의 기준들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목적은 주로 한국어를 문화생활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교양적 함양’에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습득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1) 교육부(1998), 앞의 책

다) 한국어교육 목표

한국어교육은 국어교육과 같이 교육 공통의 통일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대학 기관에서는 한국어 센터의 홈페이지나 교재를 통해 기관별로 교육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목표는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 내용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문학교육에 대한 별도의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내 대학 부속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육과정도 대부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급 단계에서는 초급단계에서 익힌 의사소통 능력을 기초로 사회적 상황의 이해로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음 고급 단계에서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불편 없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학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고 확장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중급 이상의 교육목표에 직장이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목표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중급이상을 수료했을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생활은 유학생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는 일반목적과 특수 목적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교육한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유경(2006)에 따르면 각 대학별로 일반 목적 학습자의 80%이상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다고 한다. 이들 학습자의 목표는 대학진학이 목표이지만 교재는 대부분 일반목적으로 학습되고 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수업은 학습자에게 피해가 돌아가 대학 진학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어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이유경의 연구에서 3급을 공부하고 대학에 온 사람이나 5급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다 다름이 없다는 점에 대한 유학생의 인터뷰는 정규과정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당장 자신들의 대학생활, 대학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³²⁾ 이는 기초적인 학습의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분리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 기

32) 이유경(200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관에서는 특별반, 심화반 등을 개설하여 학습 목적별로 한국어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는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의 연구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 목적을 고려한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어교육의 영역별 교육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어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교육 목표의 내용을 기능적 목표, 지식적 목표, 사회·문화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³³⁾

또한 김정숙(2003)에서도 의사소통과 문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교육목표는 각자 익힌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목적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어 일반 목적과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통합한 교육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³⁴⁾

위 논의들을 살펴보면 아직 한국어교육에는 세분화된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어과에서의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2. 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제재

소설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특성으로 정의해보면 소설은 서술적인 산문으로 되어 있고 허구를 통하여 인생을 표현하되 진실성이 있어야 하며, 인간성을 탐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창작 문학의 갈래로 규정한다.³⁵⁾ 시나 수필이 삶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소설은 인간 삶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면을 보여주는 양식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다른 문학 갈래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다룬다. 시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인물, 사건이 소설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전기와 수필이 소설과 비슷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의 세계를 표현한다.

33) 성기철(1998),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34) 김정숙(2003), 「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한국어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 문영선(2000),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소설은 그와 달리 허구의 세계에서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데, 소설에서의 허구는 진실과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미적 장치로 이해된다. 즉, 소설은 진실의 전달이라는 역사적 측면과 진리를 제시하는 철학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 문학 양식인 셈이다.³⁶⁾ 소설은 이처럼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서의 인간존재를 그리는 것이므로, 소설을 통한 체험은 구체적이다. 소설속의 인물은 구체적 현실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것과 타협하기도 한다. 소설을 통한 이러한 체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삶의 체험을 확대시켜준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살필 수 있게 해주며, 독자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피게도 한다.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해 주어서 정서의 순화와 함께 사고방식의 성찰을 가져오기도 한다. 간접 체험이 소설 속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동일시를 통한 체험은 일시적이지만 자신의 체험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간이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동일시 과정의 축적된 결과인 것이다.³⁷⁾ 그런 점에서 소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한 텍스트이다. 본 논의에서는 소설을 감상이 아닌 언어학습의 도구로써 선택했다.

소설 텍스트가 교수-학습 문학과 문학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³⁸⁾

첫째, 문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과정이어야 한다. 문학을 인간 교육을 위한 통로로 이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형상적 사유를 본질로 하는 문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문학교육이 다른 어떤 교육에서도 달성할 수 없는 문학교육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문학을 고정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역동적인 작용태로 보아야 한다. 문학을 고정적인 실체로 보면 이론의 정립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학습자들의 문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그를 문학적 소통 체계에 편입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학의 교수-학습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학 행위와 현상도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셋째, 열린 시각에서 문학의 교수-학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문학 교육은 제도 교육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적이고 지속성을 띠는 것이다. 문학적 사고능

36) 강정민(2002), 「총체적 언어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표현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37) 구인환 외(1998), 『문학교육론』, 삼지원, p.77.

38)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1995),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P. 352-353

력, 문학적 감수성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발견하며,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화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한된 교재, 제한된 목표, 제한된 상황을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의 교수-학습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문학의 교수-학습 자체도 문학 행위이며 문학 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야 한다. 이 입장은 교육일반에서도 적용되는데, 인간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의미 작용은 상호 주체성을 띄기 때문이다. 문화 행위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문학교육을 바라본다면, 문학과 문학교육의 의미는 상호 주체적으로 전달되는 기호론적 실천이고, 문학의 교수-학습은 궁극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대화라는 점을 알게 된다.

본 논의에서는 소설이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하는 초등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소설 텍스트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동화, 설화 민담 등 학년기 아동들에게 맞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중심의 텍스트들이 실리다가 소설이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설 작품들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도 본격화 된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학기별로 국어 과목과 생활국어 과목으로 나누어 편찬되어 있다. 국어 과목에는 읽기와 문학, 국어지식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국어 과목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을 각각 구체화 시켰다. 국어 교과서 단원은 단원의 길잡이, 읽기 전 활동, 자기 점검, 보충·심화 학습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 시기는 위의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비해 좀 더 심화된 학습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목록을 작성한 표이다.

<표 5> 교과서에 실린 소설

학 기	제 목	작 가	대단원명	단원구성
5-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첫째마당-마음의 빛깔	2. 경험 속으로
5-2	아침햇살 오르거든	홍 기	셋째마당-경험과 상상	2. 이야기의 바다

6-1	달같은 달걀로 갇으렴	박완서	첫째마당- 삶과 이야기	한걸음 더
6-2	소희의 일기장	이금이	첫째마당-마음의 길을 따라	2. 이야기 속으로
	청국장	최영재	첫째마당-마음의 길을 따라	한걸음 더
	연 할아버지	박상재	셋째마당-삶의 무늬	1. 따뜻한 마음
	옥계천에서	이미륵	셋째마당-삶의 무늬	2. 향기로운 이야기
	사라진 계란	이미애	셋째마당-삶의 무늬	2. 향기로운 이야기
1-1	이해의 선물	폴 빌라드	1. 문학의 즐거움	소단원(4)
	강아지 똥	권정생	1. 문학의 즐거움	보충심화
	삼국지	나관중	4. 메모하며 읽기	보충심화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5. 삶과 갈등	소단원(1)
	바람을 파는 소년	이준연	5. 삶과 갈등	보충심화
	병어리 삼룡이	나도향	5. 삶과 갈등	보충심화
	옥상의 민들레 꽃	박완서	7. 문학과 사회	소단원(3)
1-2	소나기	황순원	2. 문학의 아름다움	소단원(2)
	요람기	오영수	2. 문학의 아름다움	보충심화
	흰 종이수염	하근찬	6. 문학과 독자	소단원(1)
	숨 쉬는 영정	구인환	6. 문학과 독자	소단원(2)
	나비	헤르만 헤세	6. 문학과 독자	보충심화
2-1	소음공해	오정희	1. 감상하며 읽기	소단원(3)
	책상은 책상이다	피터 빅셀	1. 감상하며 읽기	보충심화
	기억 속의 들꽃	윤홍길	4. 삶과 문학	소단원(2)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6. 작품 속의 말하는 이	소단원(2)
2-2	동백꽃	김유정	6. 작품속의 말하는 이	보충심화
	상록수	심훈	1. 작가와 작품	학습활동
	비누인형	학생 작품	5. 창작의 즐거움	소단원(2)
	연년생	학생 작품	5. 창작의 즐거움	선택
3-1	원미동사람들	양귀자	3. 독서와 사회	소단원(2)
	아홉 살 인생	위기철	3. 독서와 사회	보충심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사회	3. 독서와 사회	보충심화
	운수 좋은 날	현진건	6.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소단원(5)
3-2	동백꽃	김유정	6.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보충심화
	오발탄	이범선	6.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보충심화
	봄바람-생일선물	박상률	1. 창조적인 문학 체험	보충심화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	장자크	1. 창조적인 문학 체험	보충심화

		장폐		
국 어 (상)	그 여자네 집	박완서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소단원(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보충심화
	봄봄	김유정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소단원(1)
	장마	윤홍길	7. 생각하는 힘	소단원(1)
	삼대	염상섭	8. 언어와 세계	소단원(2)
국 어 (하)	광장	최인훈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보충심화
	눈길	이청준	4. 효과적인 표현	소단원(2)

위에 수록된 텍스트는 고전소설부터 현대소설, 그리고 외국소설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외국소설과 고전소설을 제외한 현대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활용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위의 표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텍스트가 모두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국어 교과서는 자국인의 성장기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내용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외국인 중 어린이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들어선 20대 전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점이 다르다. 우선 학습 대상자가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선정한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위계화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제재화의 두 방향

1. 제재의 위계화

1) 제재로서의 적절성 판단

언어교육에 있어 문학작품을 통한 학습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궁극적으로 언어의 본질에 입각한 활동과 탐구이며, 이 같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문학 능력을 통한 ‘인간다움의 성취’라는 문학교육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⁹⁾

따라서 언어교육에서의 문학은 언어활동의 본질을 위해서 중요한 교수-학습 제재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 또 이론적으로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나 과학적 언어와 구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윤여탁(2002)에서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재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평가 및 작품 선정의 기준, 한국어교육의 문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시와 현대 소설목록을 국어교육에서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현 교재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보통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고, 작품선정의 기준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또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문학의 갈래로는 현대수필, 현대소설, 현대시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다음,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관점을 묻는 설문에서는, 문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학 학습을 통하여 당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반응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급 이상의 수준에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한국어 교사들이 대체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아직 제대로 이루

39)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어지지 않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교육과정 중 중급이상의 단계에서부터 한국 문학 작품을 교수-학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문학교육을 통하여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을 위한 텍스트 선정에 있어 제일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선정 기준이다. 이는 적절하고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그에 맞는 텍스트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선정하는 텍스트는 현행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 중 소설로 한정하였다. 소설 작품 중 외국작품과 고전소설은 제외하였다. 현대 소설텍스트로 한정시킨 이유는 외국인에게 고전은 사실 국어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국인 학습자에게도 많은 배경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외국소설을 제외시킨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좀 더 한국적인,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서이다. 더구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만나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읽었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한국인들이 학교를 다니며 읽었던 문학 작품들을 외국인 학습자들도 읽고 대화에 동참한다면 더 큰 문화적 교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김대행(2001)도 학교에서의 한국어능력 습득이 사회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작품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또 성년 학습자가 유아용 교재로 학습할 때의 민망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흔히 본다면 이것은 성인의 외국어 습득도 어린이의 언어 습득이나 발달과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비교육적이며 반 효과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에 실린 문학 텍스트는 아동 성장 발달에 맞춘 내용으로 동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 처음 등장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선택하고자 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학 텍스트 선정에 대하여 어떤 논의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윤영(1999)은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우선 흥미가 있는 작품을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흥미와 재미를 가진 작품이더라도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문학 수업에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3) 외국어를 배우는 언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문학 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4)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5)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해서 문학작품을 선별해야 한다.

6) 가능한 현대 작품이어야 한다.

7) 주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⁴⁰⁾

윤영(1999)은 학습자들의 흥미나 언어 능력의 고려와 텍스트의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다른 특징을 찾자면 주제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라든지 ‘한국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텍스트 수업이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 ‘활용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은정(2002)도 매체에 대한 언급만 빠져있고 나머지는 윤영의 연구와 매우 흡사하다. 다만 가능한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홍서연(2001)은 텍스트 선정 기준은 ‘언어내적’ 측면과 ‘언어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언어 내적인 측면으로는 어휘와 문장 구조를, 언어 외적인 측면으로는 국어교육과정의 목표를 참조하고 있다.

김하수 외(1996)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을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학 교육이 전체적인 한국어 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영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이상의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학텍스트 선정을 종합해보

40) 윤영(1999), 앞의 논문 참조.

41) ①대인관계유지 ②기본적인 경제활동 ③기본적인 교통 상황에 적응 ④언어에 대한 지식 ⑤기본적 공공시설 이용⑥기본적 문화 활동 가능

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교육으로서의 가치

문학 텍스트는 읽기만을 위한 수업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읽기를 통한 텍스트 이해 뿐 아니라 쓰기, 말하기, 듣기 등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문화적, 문학적 가치가 높고 구문과 문체가 복잡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흥미를 잃으면 쉽게 실증을 느끼고 오히려 부담감을 주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문화적 가치

현대 작품으로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작품이어야 한다. 문학을 통해서 목표언어 사회와 문화적인 함축적 의미까지 이해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서나 문화가 잘 드러나 있는 텍스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텍스트를 선정해야한다. 그것이 역사일 수도 있고, 전통 문화일 수도 있고, 현재 한국인의 일상생활일 수도 있다. 시기와 과정에 맞게 학습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문학적 가치

문학을 통하여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재미가 있어야 한다.

⑤ 작품의 길이

교실에서 수업하기에 너무 길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본문의 양이 많은 작품은 원어민조차도 읽기가 부담스러우므로 단편 위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작품의 길이가 짧더라도 의미가 함축적이면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저해하고 맥

락적 상황이 적어서 감동이나 흥미가 적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⑥ 보편적 주제

텍스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주제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한다. 보편적 주제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므로 작품 선정 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⑦ 학습자의 언어수준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지 않은 작품을 선택할 경우 학습자의 흥미와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 이론적인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활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토 기준을 설정해보았다. 실제 문학 수업을 위해 소설텍스트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때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항목에 맞추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본 논의에서는 교과서 수록 소설 중 고전소설과 외국소설을 제외하고 현대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항목 중 언어, 문화, 문학, 작품길이, 작품의 주제, 언어수준으로 분류하고 각 작품을 비교하여 각각 항목을 a, b, c로 체크한다. 체크된 작품에서 적합성 b이상의 작품들 중 본 연구와 부합하는 언어자료로서, 문화자료로서, 문학 자료로 활용이 높은 작품을 최종 선택한다.

<표 6> 교과서 수록 작품의 한국어교육 적절성 검토

학년	작품명	언어	문화	문학	작품 길이	주제	언어 수준	판정
5-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a	a	b	b	a	b	○
5-2	아침 햇살 오르거든	a	a	b	a	b	b	○
6-1	달같은 달갈로 갇으렴	b	b	a	a	b	c	×
6-2	소희의 일기장	c	c	b	b	c	c	×
	청국장	a	b	b	b	a	b	○
	연 할아버지	a	a	b	a	a	b	○

	마지막 줄타기	b	b	a	a	b	b	○
	옥계천에서	c	b	c	b	b	b	×
	덕쫂꼴의 세 아이	b	a	a	b	b	b	○
7-1	바람을 파는 소년	a	b	b	a	b	b	○
	옥상의 민들레 꽃	b	b	a	a	b	b	○
7-2	소나기	a	a	a	a	a	b	○
	흰 종이수업	c	b	c	a	b	b	×
	숨 쉬는 영정	b	c	c	b	b	b	○
8-1	소음공해	b	b	b	a	b	b	○
	기억속의 들꽃	b	b	a	a	a	b	○
	사랑손님과 어머니	b	b	a	b	a	a	○
8-2	비누인형	b	a	b	b	a	b	○
9-1	원미동 사람들	b	b	a	a	b	b	○
	아홉 살 인생	b	a	c	c	b	c	×
	섬마을 아이들	b	a	b	a	b	b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c	b	b	c	b	b	×
	운수좋은 날	b	a	b	a	a	b	○
	오발단	b	b	a	b	a	b	○
9-2	봄바람	b	a	a	b	b	a	○
	동백꽃	a	a	a	b	a	b	○
10-1	그 여자네 집	a	a	a	b	b	a	○
	봄봄	a	a	b	b	a	a	○
	장마	b	a	b	b	a	a	○
	삼대	b	a	a	b	b	b	○
10-2	광장	b	b	b	c	b	b	×
	눈길	b	a	a	a	b	b	○

이상과 같이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단편소설들을 살펴

보았다.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품이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하지 않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달같은 달같이 맑으렴’ 같은 경우는 현대 소설이기는 하나 시골에서 닭을 키워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입으로 수학여행을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경우 70년대 한국의 시골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까지 공감하기에는 텍스트가 너무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최인훈의 ‘광장’도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적절한 길이 차원에서 배제되기도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배경지식과 사회인식이 필요하다. 문학사적으로 ‘광장’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한 획기적인 작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난해한 내용과 작품이해에 수반되어야 할 방대한 배경지식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언어의 아름다움과 표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텍스트로는 김유정의 ‘동백꽃’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황순원의 ‘소나기’등을 꼽을 수 있다.

2) 급별 위계화 안

교육제재의 위계성은 수용자로서 학습자와 제재를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학습내용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교육과 문학과 문화 교육이 유리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초급 단계에서도 문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낮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문학 작품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에 맞는 작품의 선정과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이 적용된다면 문학교육을 통해 언어기능 교육을 실시한다면 오히려 언어 교육에 흥미와 친밀감을 형성시켜 능동적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다.

김대행(2001)은 문학작품의 위계는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아 초급과정의 학습자에게도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문학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세계나 형식의 난이도에 따라 위계가 구분될 수는 있다. 그러날 외국문학의 번안이 통용되는 데서 보듯이 수학 정도에 따라 난이도는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심청전」이 초등학교 교재가 되기도 하고 고등학교 교재에도 실릴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겨우 가능하거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초급단계의 학습자를 위해서는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서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어휘, 문장구조의 복잡성, 텍스트 분량 및 각 학습단계별 유의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작품 선정에 있어 한국어 능력 시험의 단계별 정의와 평가기준을 고려할 때 초급(1·2급)에서 요구되는 기본 어휘 3000단어와 최길시(1998)가 제시한 초급수준의 기본어휘 1000단어를 기준으로 문학 작품을 선정한다.⁴²⁾

둘째, 어휘만으로 텍스트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문장구조에 있어 한국어 능력 시험의 단계별 정의에서 초급에 해당하는 1·2급의 문장 수준을 고려한다.

- 1급 : 인사말, 의문문과 응답용 서술문간의 변환규칙, 최소한의 긍정과 부정, 기초 수량표현, 주어+서술어 혹은 주어+목적어+서술어 형식의 기본 문형구조 등을 이해한다.

- 2급 : 단문의 대등적 연결, 격조사의 익숙한 사용, 부정의문문의 원리에 숙달해 있다. 길고 짧은 부정형에 다 익숙하다.

셋째, 텍스트의 분량을 고려한다. 언어 인지도가 낮은 초급단계의 학습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긴 텍스트를 적용한다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습에 흥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가능한 짧은 분량의 텍스트가 적당하다.

넷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 교육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단계별 문화 내용 선정을 기준으로 볼 때⁴³⁾ 기본적인 생활문화를 담고 있고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초급 대상 문학 작품은 보다 이해가 쉽고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접근이 용이한 현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42) 여기서 제시한 어휘기준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했을 뿐이며, 실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어휘와 의미 관계로 맺어지는 다른 많은 어휘와 문학 작품에 사용된 사투리 및 시적 허용된 단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개연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다소 어려운 어휘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문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문학 작품은 선정 대상에 포함하였다.

43) 학습 단계에 따라 교육내용의 수준이 다르듯,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문화 요소의 수준 또한 학습자의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초급 단계의 문학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문화 교육적 효과로 문화적 친밀감 형성에 학습동기 유발 정도로 두는 것이 좋다. 언어 인지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학 교육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초급의 문학 교육은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교육에 비중을 두면서 그 속에서 문화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적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이 언어교육의 발달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초급 학습자에게 적당한 문학 작품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다음은 중급 단계를 위한 문학 작품을 살펴보겠다. 언어인지도가 낮은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문학 교육이 언어 교육적 측면에 맞추어 고려되었다면 중급, 고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언어 교육적 측면과 문학과 문화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중급 단계의 학습자는 기본적인 생활과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단순한 통역이 가능하며 신문과 중단편의 문학을 읽을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면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3·4급의 어휘 수준인 일상어휘 혹은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기준으로 하고 최길시가 중급에 적합하다고 선정한 단어기준 3000단어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선정한다.

둘째, 문장 구조면에 있어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단계별 정의에 해당하는 3·4급의 수준을 고려한다.

- 3급 : 종속적 연결문, 빈도 높은 변칙용언 등을 숙지하고 있다. 용언에서 부사형을 익숙하게 만든다. 기본적인 피사동 변형이 가능하다.

- 4급 : 드문 말이 아니면 사실상 모든 피사동 변형이 가능하다. 비유와 숙어적 용법이 아니라면 일반 문장구조 대부분을 이해한다. 감탄문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셋째, 문학 작품의 내용면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문화에서 나아가 제도문화

즉 한국의 생활풍습 및 양식과 한민족의 정신적 원형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정서를 다룬 문학 작품 중심으로 선정한다.

넷째, 중급 단계의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은 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확장하여 과거를 배경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까지도 포괄하며, 이를 통해 보다 완전한 한국문화의 이해와 공감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급 학습자에게 적당한 문학작품을 교육과정에 비추어 중학교 국어 교과서⁴⁴⁾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학작품은 한국인 학습자가 보편적으로 학습해야 할 기본 문화와 민족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편성 측면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기본으로 하였다.⁴⁵⁾

끝으로 고급단계의 학습자는 이미 상당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높은 문화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인지도가 높은 고급 단계라 하더라도 실생활 자료에서 잘 이해될 수 없는 문화적 요소가 있다. 바로 민족의 고유하고 특수한 정서, 예를 들면 한(恨)의 정서와 향토적 정서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문학에는 이러한 특수한 정서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문학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감동을 매개로 하기에 민족의 특수한 정서를 거부감 없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은 고급 단계에 적합한 문화 교육으로서 그 효용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신문, 라디오, TV 매체에서 거론되는 시사 문제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문장이나 말로 전달가능하며 기본적인 토론, 토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학 작품 선정의 기준을 살펴보자

첫째, 어휘 면을 고려할 때, 고급 단계의 학습자는 일상생활의 일상적 어휘뿐만 아니라 빈도가 높은 추상적인 어휘 및 전문적 어휘의 이해가 가능하므로 작품의 선정에 있어 좀 더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장구조 면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의 단계별 정의에서 고급에 해당하는 5·

44)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1-1, 1-2, 2-1, 2-2, 3-1, 3-2에 실린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5) 그러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모든 문학 작품들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과정에 맞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닌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6급의 문장 수준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선정한다.

- 5급 : 빠른 발화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문장구조 이해, 문장구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거나 새로운 문형을 이해한다.

- 6급 : 괴팍한 표현이나 지나치게 빠른 말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다 이해한다.

셋째, 내용면에서 생활문화나 제도문화가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심층적인 정신문화까지도 작품의 내용으로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적인 한(恨), 향토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작품의 수용이 가능하며,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한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내용의 작품선택이 가능하다.

작품선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언어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고급 학습자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민족 간이나 국가 간의 문제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민족감정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 문화를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우월하게 바라본 작품 역시 피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에서 고급 단계를 위한 문학 작품을 선정하였다

다음 <표 7>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소설 작품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위계화 하여 한국어교육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다시 정리한 표이다.

<표 7>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제재

급별	작품명
초급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침햇살 오르거든
	청국장
	연 할아버지
	마지막 줄타기
중급	바람을 파는 소년
	옥상의 민들레꽃
	소나기
	숨 쉬는 영정

	소음공해
	기억속의 들꽃
	사랑손님과 어머니
	비누인형
고급	원미동 사람들
	동백꽃
	섬마을 아이들
	운수좋은 날
	오발탄
	봄바람
	그 여자네 집
	봄봄
	장마
	삼대
	눈길

2. 성취기준의 체계화

1) 수평적 계열화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국어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중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내용체계를 선별할 것이다. 선별과정에서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논의 되고 있는 언어 기능 교육을 살펴보고 국어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체계와 비교해 볼 것이다.

국어교육에서도 한국어교육에서도 언어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균등하게 숙달시키는 것이다. 말은 할 수 있으나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읽기는 하나 쓰지를 못한다면 학습자의 욕구충족이라는 면에서는 물론 외국어 학습의 목표인 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적 능력, 사회문화적 언어 능력을 신장하는 일에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위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말하기와

쓰기는 화자의 의사표현 기준에서, 읽기와 듣기는 정보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묶을 수 있다.

말하기는 음성언어이고 글은 문자언어이다. 읽기와 쓰기는 문자를 매개로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읽기는 어휘력과 독해력 신장의 원천으로 폭넓은 학습 잠재력을 가진다. 학습자들은 읽기를 학습하면서 정확한 억양과 발음을 익혀 말하고 듣게 된다. 그러면서 점차 다양한 읽기를 통하여 목표어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수준 높은 언어생활에 다가가게 된다. 쓰기는 문자라는 도구를 통하여 음성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말하기·듣기에 비하여 더 논리 정연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쓰기는 이미 습득한 다른 언어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도구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미 습득한 다른 언어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도구의 기능을 가진다. 쓰기는 독립적으로 습득되기보다 말하기, 듣기, 읽기의 숙달 여부가 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언어기능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교육이 독립된 교육이 아닌 서로 유기적인 통합적 기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가. 듣기

언어의 일차적인 기능은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활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듣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울 때 듣기를 잘해야 말도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언어교육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교육이 듣기교육이다. 듣는다는 행위는 매우 복잡하다. 음성·단어·문장의 단위로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미를 수용, 또는 거부하기 위하여 평가까지 한다.⁴⁶⁾ 듣기 수업을 하려면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듣기 수업의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듣기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논의를 먼저 살펴보면, 손연자(1996)는 교사의 한국어 표준발음을 구사하고, 학습자를 고려한다는 의도로 말하는 속도를 지나치게 느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지도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학습자가 특정 단어와 문법을 듣지 못하더라도 전체내용을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초급 학습자에게

46) 김민애(1993), 「쓰기 지도를 위한 과제 진술 방법연구」, 『한국어교육 실습론』, 서울대 어학연구소

는 음운층위의 자모 듣기나 억양의 구별에 학습목표를 두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휘, 구문의 이해, 단문이해에 학습목표를 두며, 점차적으로 담화, 문맥층위에서의 연습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국어교육과정에서의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듣기영역의 내용체계를 보면,

(1) 들을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이 내용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모두 필요한부분이다. (2)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이 내용 또한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내용이다. (3)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이 내용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무리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제외시킨다. (5) 상대방의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이 내용 또한 초급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내용이다. 다음 (6) 끝까지 듣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듣는 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6학년 듣기부분의 내용체계 중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내용체계를 발췌해 보면 (2)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5) 여러 가지 매체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듣는 태도를 지닌다. 이 두 내용체계는 외국어를 배울 때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처음 듣는 어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휘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여러 매체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곧 한국어교육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듣기 부분을 살펴보면, (1)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5) 메모하며 듣는 습관을 가진다. 이 성취내용은 한국어에서 흔히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들리는 말에 대하여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 학습 향상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좋은 내용체계이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학년의 듣기 관련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1) 듣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이 내용은 말을 잘못 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므로 잘 듣는 것이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알 수 있는 단계라 판단된다.

(2), (3), (4), (5)번 항목인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파악한다든지, 같은 내용에 대한 여러 사람을 말을 듣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들은 내용을 응집하고, 상대방의 비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한국어 중급 학습자에게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고급 과정인 중학교 3학년과 10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듣기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2)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4) 말하는 이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2), (4) 중심 내용을 메모하면서 듣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말하는 이에 대해 적절한 표정이나 몸짓으로 반응하며 듣는 항목은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10학년 (1) 반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듣는다. 듣기에 있어서 비언어적 표현도 언어의 종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한국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의 말을 듣고, 듣는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는다면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검토해 보았다. 검토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듣기 영역 내용

학년	내 용
5학년	- 들을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 끝까지 듣는 태도를 지닌다.
6학년	-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 여러 가지 매체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듣는다.
7학년	-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을 가진다.
8학년	- 듣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9학년	-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 말하는 이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 반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듣는다.

나. 말하기

흔히 외국어 능력은 그 언어로 얼마나 말을 잘 할 수 있느냐로 판명된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 알아듣는다고 해도, 또 아무리 외국 책을 잘 읽는다고 해도 외국어로 한마디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외국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

로 외국어로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유창하게 외국어로 대화를 한다면 그 사람의 외국어 능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만큼 외국어에서 말하기 능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다. 물론 외국어 능력이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네 가지 기능이 고루 발달되어야 하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 되는 요즘의 외국어 있어서는 네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시 되는 능력이 말하기다. 한국어 읽기 지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대화 형식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방법으로는 본문 외우기와 상황역할, 수업내용의 복습 등이 있다. 또한 혼자 발표하는 내용으로는 주말이야기, 오늘의 화제, 그림이나 사진 이야기 등을 이용하여 말하기 수업을 진행한다.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서로 다를 수 도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국어교육과정의 체계적인 내용을 인용하여 한국어교육 방향성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음은 말하기 부분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내용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5학년 (1) 말한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3)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1) 항목은 얼굴을 맞대고 말할 때와 전화로 말할 때를 비교해보고, 말하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외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이 될 것이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학습시킨다. 항목 (3), (4)의 분류와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전개하는 과정은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내용체계이다.

6학년 말하기 내용체계인 (1), (2), (3), (4) 항목인 면담을 통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 말한다거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외국인에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5)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6) 여러 가지 말하기 규칙을 지키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5) 항의 여러 가지 표현은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말하는 연습을 한다면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항 말하기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문화마다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며 듣는 것은 한국어교육에서도 필요한 내용체계이다.

7학년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4)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며 말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또한 상대와의 사회적 관계, 지위 등 말하는

곳의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어휘나 억양, 어조, 강약을 달리하며 말하고, 동일한 사람이 사회적인 역할이 바뀔에 따라 어투가 달라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8학년 (1)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이는 말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좋은 말하기 학습이 될 것이다.

9학년 (5)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는 언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항목이라고 판단된다.

(4) 표현과 전달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말한다. 말을 전달 할 때는 상황, 목적,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말한다는 것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한 말하기 단계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말하기 영역 내용

학년	내 용
5학년	- 말할 때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6학년	-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 여러 가지 말하기 규칙을 지키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
8학년	-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9학년	-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 표현과 전달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말한다.

다. 읽기

읽기는 의사소통 능력 가운데 정보의 획득과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은 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것을 읽고 해독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읽기는 말하기, 듣기, 쓰기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어 학습자가 단순문자를 소리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해서 읽기 능력을 갖

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외국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외국어로 쓰여진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읽기 능력을 획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에 있어 낱말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겠다.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읽기 부분을 검토해보면, 먼저 5학년 과정을 살펴보면 (2)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이는 글에 나온 낱말의 의미를 앞, 뒤 문맥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고, 그 낱말을 다른 낱말로 대체해 보면서 어휘력을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국어교육의 읽기 체계 중 글의 종류, 사실과 의견, 내용추론 등은 성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초등 단계의 어린이들처럼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학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8) 도서관에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한국어에 자신감이 생기면 서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읽을거리를 도서관에서 찾아 읽으므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6학년 읽기 과정에서는 (2)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읽는다. (3) 글을 읽고,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2)항의 다양한 표현의 의미는 글쓴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속담, 관용표현, 격언, 명언 등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고, (3)항은 글을 읽을 때 핵심어나 중심 내용을 찾고 이를 적절하게 묶어 의미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요약하는 방법은 한국어교육에서도 효과적인 읽기 교육이라고 판단된다.

7학년 읽기를 살펴보면 (2)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이 항은 앞에서도 나오지만 메모하며 읽기는 국어교육과정에서도 한국어교육에서도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8학년 내용체계에서는 (6) 여러 종류의 사전을 글 읽기에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한국어교육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9학년 내용체계에서는 (2)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6)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 (2)항은 글을 읽으면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조직하여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은 한국어교육에서 매우 필요한 성취 목표가 된다. (6)항 또한 영상 매체나 청각 매체 인터넷 등 글의 내용을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읽기의 마지막으로 10학년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읽기가 의사소통 행위임을 안다. (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읽기는 모든 정보와의 의사소통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글을 읽는 행위는 한국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행위라 판단한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읽기의 내용체계를 살펴보았고,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읽기 영역 내용

학년	내 용
5학년	-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도서관에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6학년	-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읽는다. - 글을 읽고,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7학년	-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8학년	- 여러 종류의 사전을 글 읽기에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10학년	- 읽기가 의사소통 행위임을 안다. -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라. 쓰기

인간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구두 언어와 문자언어가 있다. 쓰기란 바로 이 문자언어를 통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글쓰기 교육을 언어교육의 최종단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인지된 기존의 사고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어 성인 학습자는 이미 모국어 글쓰기에 대한 개념과 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체계적인 쓰기 지도를 한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쓰기 교육 목표의 공통점은 우선 한

글 자모의 학습으로 시작해서 기본적인 문형과 어휘를 익혀 정확성을 함양하고 단계적으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자와 연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쓰기목표라고 본다.

위 쓰기 목표를 기준으로 국어교육과정 쓰기의 내용체계 중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학년 (8)항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찾아 고쳐 쓴다. 내가 쓴 글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는 활동은 한국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5학년 쓰기인 분류와 분석, 예시, 비유는 성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이미 터득한 내용이므로 다시 학습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6학년 쓰기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쓰기가 의미형성과정임을 알고 면담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하여 끝을 쓰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 학습자의 교육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5) 사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글을 쓴다. 이 항목은 쓰기를 배움으로써 친구나 가족의 모습, 교실 모습, 창밖의 풍경 등을 생생하게 쓰는 학습을 통하여 한국어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7학년 쓰기내용에서는 (3)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글을 쓴다. (4)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3)항목을 선정한 이유는 주제를 정해주고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이 한국어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쓰기에서도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8학년 쓰기에서는 (3) 문법에 맞게 글을 쓴다. (4)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쓴다. (6) 정확하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한국어교육에서 문법을 배운 학습자라면 어순이나 문법의 쓰임, 호응관계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여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쓴 글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찾아 고쳐 쓰기를 통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9학년 쓰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2)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한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글쓰기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 대학으로의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이므로 대학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쓰는 연습이 많이 한다면 유학생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0학년 쓰기에서는 (3)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이 내용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내용조직 원리를 적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1> 쓰기 영역 내용

학년	내 용
5학년	-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고쳐 쓴다.
6학년	- 사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글을 쓴다.
7학년	-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글을 쓴다. -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8학년	- 문법에 맞게 글을 쓴다. -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쓴다. - 정확하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한다.
10학년	-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마. 문학

국어교육의 문학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한국문학 작품의 가치 및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 한국 문화 요소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의 내용체계에서 문학적인 내용과 문화적 요소를 함께 발췌할 것이다 먼저 문학적인 부분을 발췌하고 문화적 요소에 대한 내용을 발췌 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문학부분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5학년 (3)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는다. (4)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6)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5학년 내용에서는 작품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나 느낌을 살려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고, 소설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서로 비교해 보고,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통해 문학이 주는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6학년의 문학 내용에서는 문학의 갈래를 안다든지, 작품에 창의적으로 반응한다는 내용은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기본 지

식으로 형성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7)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한국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작품이나 영상자료를 통하여 한국어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7학년 문학 내용은 (2) 문학과 일상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문학작품에 쓰인 언어와 일상속의 언어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 갈 수 있다. 그 외에 소통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과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 작품 속 인물간의 갈등 해결과정은 작품 이해의 측면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본 논의에서는 소설 작품의 감상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매개로 한국어 향상을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언어적 측면의 향상을 고려하고 있다.

8학년에서도 (2)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작품에서 사용한 언어적 표현을 찾아보고 그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말한다.

9학년 문학 내용 중 (6)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써본다. 한국 문학 중 소설 텍스트를 통하여 문학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대표적 작품 중 읽고 싶은 작품을 선정하여 읽기를 통하여 한국의 문학작품과 문화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10학년 내용에서는 (6)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이 항목의 자신의 많은 문학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말하고, 이를 문학적인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심미적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문학적 언어의 이해도 함께 이루어 질 것이다.

<표 12> 문학 영역 내용

학년	내 용
5학년	-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는다. -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6학년	-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8학년	-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9학년	-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
10학년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바. 문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학의 내용 중에서 문학적인 부분을 먼저 발췌하고 문화적 요소를 발췌할 것이다. 문학의 문화적 내용을 살펴보면, 5학년 (1)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수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이 항목은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유학 온 한국어 학습자에게 같은 문학 작품이라도 서로 다른 다양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며 나와 다른 느낌을 말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해 봄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친구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6학년 (5)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한다. 이는 작품에서 가치나 문화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 보고 현실과 비교해 본다. 7학년 (5)작품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 상황을 이해한다. (6)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의 인물의 행동을 파악한다. (7)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작품과 속에 드러난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이 그 대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학년 (7)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작품 속에 한국의 전통이나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현실의 문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자국의 문화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음 9학년 문화내용을 살펴보면, (5)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사회, 문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학습자가 만약 작가라면 어떤 글을 쓰게 될지 서로 토론하고 써본다. 마지막으로 10학년의 내용에는 9학년 내용의 확장에 가깝고 특히 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 (7)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 내용은 내국인 학습자에게는 적당한 내용일지라도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외시킨다.

<표 13> 문화 영역 내용 체계

학년	내 용
5학년	- 작품을 읽는 이에 따라 수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6학년	-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한다.
7학년	-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 상황을 이해한다. - 작품에 드러난 사회 · 문화적 상황에서 인물의 행동을 파악한다. -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학년	-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작품에 드러난 사회 · 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10학년	선정 없음.

2) 수직적 계열화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모든 작품이 한국어교육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소설 텍스트를 선정하여 위계화 하였다. 마찬가지로 국어교육의 내용체계 또한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위에서 발췌하였다. 발췌한 내용체계가 등급별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내용인가를 다시 선별하여 위계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학년에서 간추린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는 이제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학습자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초급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중급 학습자는 되어야 가능한 학습이라고 판단하여 중급으로 한 등급 올려보았다. 또한 읽기에서도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또한 초급 학습자에게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이 내용도 중급으로 선정했다. 문학에서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와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국어를 학습한 내국인 학습자의 경우 그동안 배운 동화, 아동소설 등을 읽으며 내용파악 및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만 한국어를 학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학습자에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또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

급으로 조정하였다. 6학년 읽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또한 아직 글쓰기가 원만하지 않은 초급학습자에게는 무리가 있어 중급으로 올려 보았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내용 체계는 한국어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4> 한국어 내용체계 분류

급	분 류		내 용
초 급	언 어 능	듣기	- 들을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 끝까지 듣는 태도를 지닌다. -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 여러 가지 매체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듣는다.
		말하기	- 말할 때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읽기	- 도서관에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가며 읽는다.
		쓰기	- 사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글을 쓴다.
	문화		-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한다.
	문학		-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는다. -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중 급	분류		내 용
	언 어 능	듣기	- 듣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말하기	-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
		읽기	-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 여러 종류의 사전을 글 읽기에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쓰기	-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글을 쓴다. -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문화		- 작품을 읽는 이에 따라 수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고 급	분류	내 용
	언 어 기 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문학	

위 표와 같이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내용체계를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위계화하여 보았다. 다음은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해 선정한 소설텍스트이다. 여기에서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다음 장에서 위에서 체계화한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언어교육, 문학교육, 문화 교육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실제 활용한 교수-학습 안을 구성해보겠다.

다음 표는 위 3장에서 선정한 소설 텍스트 중 3편씩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작품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간략하게 나타낸 표이다. 이 중 초급, 중급, 고급 작품 중 한 편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안을 각각 구성해 보고자 한다.

<표 15> 작품의 주제 및 내용

급별	작품명	주제 및 내용	수업 활용성
초급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닮은 권력의 형성과 몰락의 과정을 초등학교 교실에 집약시켜 형상화한 작품으로 후에 영화·연극화 되어 크게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언어기능 문화, 문학
	연 할아버지	통일을 염원하며 연을 만들어 북에 있는 고향에 가서 연을 날리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의 삶이 잘 나타나 있다.	한국 문화
중급	소나기	시골로 전학 온 서울 소녀와 순수한 시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산으로 강으로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지병을 앓고 있던 소녀는 죽음을 맞는다. 성장통을 지독하게 앓게 된 소년의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영상 매체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언어, 문학, 문화
	숨 쉬는 영정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사의 비극인 이산 가족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 오랜 염원 끝에 가족을 찾았지만 영정으로 밖에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기억속의 들꽃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전쟁의 폭력으로 한 송이 들꽃처럼 죽어 간 한 소녀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언어, 문학, 문화
고급	오발탄	이 작품은 6·25 직후의 해방촌을 배경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정신적 지주를 잃고 표류하는 철호네 일가를 통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	역사, 문학, 문화

		한 과멸을 보여 주는 전후 문학 계열의 소설이다. 전후의 비극적인 삶과 가치관의 혼란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여자네 집	민족사의 비극 속에서 겪는 개인의 사랑과 좌절을 그리고 있다.	언어, 문학, 문화
	눈길	극에 달한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집을 잃고 떠돌아야 되는 가족들의 이야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차 태워 보내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과, 부모에 대한 부담과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부모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문화, 문학



HANSUNG
UNIVERSITY

IV. 제재별 교수학습 방법 사례

1. 초급의 경우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5학년 1학기 첫째마당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내국인 학습자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야기이며, 공감되는 이야기이다. 이는 교실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보편적인 이야기로서 자국에서 공부하던 때를 되돌아보며 한국의 교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을 교육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의 교실 문화에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소재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한국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한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한국어 초급학습자에게 다소 텍스트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서 밝혔듯 한국의 교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상황 맥락으로 접근하여 교수한다면 초급 학습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버지의 좌천으로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Y읍의 초라한 학교로 전학을 온 ‘나’는 학급 반장 엄석대가 아이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담임선생님께 말하지만, 오히려 배척받고 소외당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그의 신임을 받게 된다. 하지만 6학년이 되어 만난 새 담임선생님에 의해 엄석대는 힘을 못 쓰게 되고, 점점 학급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한다. 그 후 어른이 된 ‘나’는 엄석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지만 수갑을 차고 경찰에 붙들려 가는 엄석대를 보고는 좋지 않은 기분에 휩싸인다.

1) 언어교육

위 <표 1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듣기와 말을 할 때는 상황을 고려하고, 표현의 의미를 알아가며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언어교육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

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습목표 :

- 듣고 말할 때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한다.
- 듣고 읽을 때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가며 듣고 읽는다.
- 여러 가지 매체에 관심을 가지며 도서관에서 관심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다.
- 사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글을 쓴다.

가. 흥미 및 동기유발 준비단계

이 단계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소설 작품을 통한 교육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어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학습자에게는 소설 텍스트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 어휘, 작가와 같은 요소들을 미리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해소하고 스스로 읽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⁴⁷⁾ 이를 통해 소설의 기본 어휘와 문장, 문화적 배경을 학습하여 작품 이해가 보다 쉽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한 초급 학습자에게 본문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어 한국어교육 초급에서는 내용을 시각화 하여 문학작품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에게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한국의 문학작품에 대한 흥미와 자연스럽게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ㄱ. 제목과 관련된 연상질문 하기

수업 들어가기 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제목을 보고 ‘영웅’이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습자가 생각하는 영웅은 어떤 인물인지 의견을 나누어 본다.

47) 이재석(2006),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p32.

ㄴ. 주제와 관련된 질문하기

초급 소설 텍스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기 전에 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는 작가의 의도와 소설 내용을 보다 깊게 감상할 수 있다.

질문 :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혹은 같은 학년 친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해보게 한다.

나. 수업 중 활동 단계

이 단계에서는 지은이 소개를 간략하게 한다. 텍스트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품 분석을 통한 내용 이해 정도, 새로 나온 어휘나 문형을 통한 연습을 활용 한국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ㄱ. 텍스트 전체 내용 이해하기

미리 읽어온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읽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갈등, 갈등의 해결과정, 작품의 구성, 주제 등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활동이다.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해당 학습자는 발표한다.

질문 :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해 본다.

질문 :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 :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엄석대와 한병태의 갈등은 무엇인가?

그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ㄴ. 새로운 어휘 및 문형 연습

소설을 읽고 새로 나온 어휘 및 문형을 연습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마무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인공과 같은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역할극을 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써보게 한다.

2) 문학교육

학습목표 :

-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는다.
-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읽기 전 활동

-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서로 교환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사진을 보고 엄석대와 한병태를 찾아보게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영화 포스터이다. 엄석대의 모습을 보고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초급 활동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사진 속에서 주인공 찾아보고 느낌을 말해보는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 작품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읽은 후 활동

-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이나 행동에서 파악하고 발표해 보게 한다.

등장인물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성격
한병태	“반장이 부르면 다야? 반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고?”	사내답고 당당함.
	그 아이의 철저한 복종이 다시 묘한 힘으로 나를 몰아, 잠시 머뭇거린 것으로 저항을 마치고 나도 자리를 옮겼다.	자신감이 부족함.
엄석대	· 한병태를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오라고 함. · 아이들의 자리를 마음대로 바꿈.	독재적이다.

3) 문화교육

학습목표 :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한다.

▶ 읽기 전 활동

1. 우리 반의 반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자기 나라에도 반장이 있는지 묻는다.
 - 이 질문을 통해 각 나라의 학급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2. 반장이 있다면, 반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 본문에서는 반장의 조건을 공부를 잘하거나, 잘살거나 등 한국의 줄 세우기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읽기 후 활동

1. 한국에는 ‘텃새’ 라는 문화가 있다. 한국에 와서 이런 ‘텃새’를 받았다고 느낀 일이 있는지, 그 사건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본다.
2. 서울과 시골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서울 중심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3. 한국의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 및 예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각 나라와 비교 해 본다.



4) 실제 단원 편성

.....

20과. 한국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배워요.

준비합니다.



- 위 사진에서 아이들은 어떤 사이 일까요? 직업이 뭘까요?
- 이런 옷을 본 적이 있나요? 세 아이의 표정을 이야기 해 보세요.

해 봅니다.

1. 우리가 배울 문학작품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입니다. 여기서 ‘영웅’의 뜻은 무엇일까요?

2. 여러분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새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

3. 한국친구와 생각이 달라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싸운 친구와 어떻게 화해했습니까?

4.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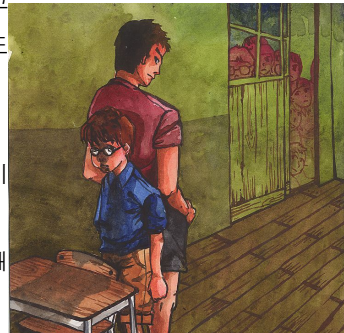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 보아요.

<읽기 1>

그때껏 서울에서 내가 보아 왔던 반장들은 하나같이 힘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안이 넉넉하거나 운동을 잘 해 거기서 얻은 인기로 반장이 되는 수도 있었으나, 대개는 성적순으로 반장, 부반장이 결정되었고, 그 구실도 반장이라는 명예를 빼면 우리와 선생님 사이의 심부름꾼에 가까웠다. 드물게 힘까지 센 아이가 있어도 그걸로 아이들을 억누르거나 부리려고 드는 법은 거의 없었다. 다음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걸참아 주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날, 전혀 새로운 성질의 반장을 만나게 된 것이다.

“반장이 부르면 다야? 반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고?”



단어와 표현

하나같이 넉넉하거나 대개는 명예 부리려고 선거 감격
대령 흡사 인기 성질 대령 드물게

1. 위 글은 어떤 상황입니까?

2. 새로운 성질의 반장은 어떤 반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3. 여러분이 원하는 반장은 어떤 반장 입니까?

♠ 다음 글을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 보아요.

<읽기 2>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난 엄석대는 어른처럼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더니, 제 줄 앞의 앞엿 자리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너는 저기 앉도록 해. 저기가 네 자리야.”

그 갑작스러운 지시에 나는 약간 정신이 들었다.

“선생님이 조기 앉으라고 하셨는데…….”

문득 되살아나는 서울에서의 기억으로 그렇게 대꾸하였지만, 얼마 전의 투지는 되살아나지 않았다. 엄석대는 내 말을 못 들은 척 넘어갔다.

“어이, 김영수, 여기 이 한병태와 자리 바꿔.”

석대가 그 자리에서 앉았던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 아이는 두말하지 않고 책가방을 챙겼다. 그 아이의 철저한 복종이 다시 묘한 힘으로 나를 몰아, 잠시 머뭇거린 것으로 저항은 마치고 나도 자리를 옮겼다.



단어와 표현

앞엿자리	갑작스러운	조기	지시	되살아나는	대꾸
철저한	복종	묘한	투지	머뭇거린	저항
두말하지 않고					

1. 엄석대와 한병태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 둘의 관계가 변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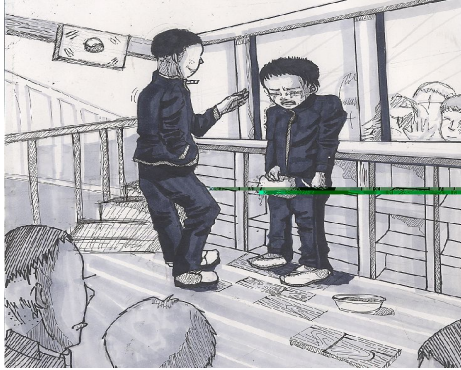
함께 생각해 보아요.



1. 한병태와 엄석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주인공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 보세요.

등장인물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성격
한병태		
엄석대		



2. 위에 그림에서 엄석대와 한병태를 찾아보세요.

3. 여러분 나라에도 반장이 있습니까? 반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4. 우리반에도 반장이 있습니까? 우리반 반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반장이 없다면 어떤 친구가 반장이 되면 좋을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더 알아보아요.

1. 한병태가 갑자기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텃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한국의 ‘텃새’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 라면~

♠ 아래와 같이 써보세요.

내가 만약 반장이라면 매일매일 친구들을 위해 교실을 청소 할 거예요.

1. 내가 만약 한병태라면 _____.
2. 내가 만약 엄석대라면 _____.

한국의 교실을 배워요

♠ 여러분 나라 교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써 보세요.

특징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반장				
교복				
선생님과의 관계				



2. 중급의 경우 : 「기억속의 들꽃」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수록되어 있는 ‘기억속의 들꽃’ 단원의 교과과정 학습목표는 ‘주요 사건을 파악하여 인물간의 관계 및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와 ‘작품 속에서 인물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이 인물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말할 수 있다.’이다. 이 작품은 우리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한국어 중급 학습자에게 다소 무거운 감이 있지만,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이라는 소재는 낯설지 않은 소재이다. 아직도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 작품에는 전후 소설이라는 분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작품이 전쟁의 아픔을 소재로 하고 있다.

문학 작품은 작가 개인의 상상력이 발휘된 예술이면서 동시에 그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을 맺고 있는 시대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그 작품을 좀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점을 인식시키고 문학 작품을 삶과 연결 지어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이 작품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문학작품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작품 속에서 인물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이 인물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6.25 전쟁 중 폭격에 의해 만경강 다리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피란을 가기 위해 물려드는 사람들을 모면서 어린 ‘나’는 피란을 가고 싶어 한다. 결국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할머니와 누나와 함께 피란길에 오르지만 곧 돌아오고 만다. 그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는 ‘나’에게 서울 말씨를 쓰는 계집에 같은 녀석이 말을 걸며 다가온다. ‘명선’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천연덕스럽게 나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매몰차게 쫓아 내려고 한다. 그 때, 명선은 어디서 났는지 모를 금가락지를 내밀고 그걸 본 어머니는 번개처럼 금가락지를 낚아채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명선을 살갑게 맞아들인다.

하지만 어지러운 전쟁 중에 아이 하나를 더 먹이는 것은 가난한 ‘나’의 집에 큰

부담이 되어서, 그의 어머니는 금가락지 하나 받은 것으로 명선이를 더 데리고 있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때, 명선이는 어디선가 또 금가락지를 가져온다. 그러자 ‘나’의 부모님은 분명히 어딘가에 금가락지를 몇 개 더 숨겨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명선이를 무섭게 다그치기 시작한다. 금가락지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명선이의 목에 걸려 있는 개패를 발견하면서 ‘나’의 부모님은 명선이가 부잣집 아이라는 걸 알고 다시 애지중지하는 척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명선이가 여자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끊어진 만경강 다리의 철근 위에서 놀던 명선이는 비행기 소리에 놀라 떨어져 죽는다. 명선이가 사라지고 난 후 어느 날 ‘나’는 명선이 외에 누구도 가지 못했던 철근의 끝에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무서워하면서도 철근 끝까지 하는데 성공한다. 나는 그곳에 작은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곡예를 하듯 위태롭게 낚아서 열어본다. 나는 그 안에 노란 동그라미 몇 개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주머니를 떨어뜨린다.

‘기억속의 들꽃’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아이들의 순수함과 이웃 간의 인간적인 정마저 잃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1) 언어교육

학습목표 :

- 듣기, 읽기,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글을 듣고 읽을 때는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
-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가. 읽기 전 흥미 유발 단계

ㄱ. 제목과 관련된 질문하기

왜 작품 제목을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기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들꽃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아래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서 이야기 해 보게 한다.

ㄴ. 주제와 관련된 질문하기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많은 사람이 죽는다.
- 이산가족이 생긴다.
- 집이나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다.
-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만든다.
- 이웃까지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만든다.

나. 수업 중 활동 단계

ㄱ. 텍스트 전체내용 이해하기

미리 읽어온 소설 ‘기억속의 들꽃’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다.

- ① 동네 아이들과 싸울 때 밑에 깔렸다가도 갑자기 무서운 힘을 내서 위에 있는 아이를 밀치고 일어난다.

- 피란길에 공습을 만나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어머니의 시신이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라 두려워서.

- ② 사내아이처럼 하고 다닌다.

- 전쟁의 혼란 속에서 여자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③ “숙부가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가
경계심을 드러낸다.

- 숙부가 금반지를 빼앗기 위해 명선이를 죽이려고 한 사실을 ‘나’가 알게 되면 자기에게
금반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④ 평소와 다르게 들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며 머리에 껴는다.

- 명선이는 전쟁이 나기 이전에는 서울의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여자 아이였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남자 아이처럼 살고 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다움이 나타나서.

⑤ 끊어진 다리의 철근 끝에 금반지를 숨긴다.

- 어른들에게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금반지를
숨기려고.

ㄴ. 새로운 어휘 및 문형 연습

다. 마무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들꽃처럼 살다가 죽은 주인공 명선이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 편지를 쓰도록 한다.

2) 문학교육

학습목표 :

-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 읽기 전 활동

1. 아래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와 비슷하게 생각되는 사진을 본 기억이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본다.



아이를 업은 소녀의 손에 쥐어진 나무뿌리는 이 가족의 한 끼 식사일까, 아니면 땀감일까?



피난을 가는 일가족의 전형적인 모습. 이렇게 지게에 가재도구를 싣고, 수백리 길을 걸어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어린 형제가 골목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



동생을 업은 소녀 뒤로 탱크가 보인다. 전쟁은 이 어린 남매에게 부모를 앗아갔다.

- 소설 '기억속의 들꽃'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위 사진은 전쟁으로 인해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본문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자료이다.

▶ 읽기 후 활동

1. 사람들이 명선이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고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등장인물	명선이를 대하는 태도	성격
‘나’	명선이를 친구로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 논다. 명선이가 끊어진 다리를 용감하게 건너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부끄러워 한다.	순진하고 순수하다.
어머니	‘나’가 처음에 명선이를 데려왔을 때 야단을 쳤으나, 금반지를 보고 명선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금반지 값만큼 명선이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명선이를 내쫓으려고 한다.	이해 타산적이고 욕심이 많으며 돈을 좋아 한다.
아버지	명선이가 금반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명선이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또 숨겨 놓은 금반지를 찾기 위해 명선이를 보호하고 감시한다.	욕심이 많고 사납다.
명선이의 숙부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조카인 명선이를 해치려고 한다.	탐욕스럽고 비정하다.

2. 명선이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 전쟁이 나서 피난을 떠남
- 피난길에서 비행기의 폭격으로 부모를 잃음
- 죽음의 위험을 피해 숙부에게서 도망을 칩
- ‘나’를 만나 우리 집에 오게 됨
- 금반지로 부모의 환심을 사서 머무르게 됨
- 점차 괘시를 받게 되자 다시 금반지를 내놓음
- 금반지의 행방을 추궁당하지 집을 나가게 됨
- 봉변을 당하면서 여자임이 밝혀짐
- 다리위에서 들쭉처럼 떨어져 죽음



3) 문화교육

▶ 읽기 전 활동

1. 학습자가 알고 있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게 한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모두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남과 북을 영화로 풀어낸 <태극기 휘날리며>와 <공동경비구역 JSA>가 남긴 것은 신화를 만들었던 흥행 기록수의 수치만이 아니었다. 두 영화는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우리 시대의 아픔을 되새기고 한국전쟁이라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새롭게 그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발판을 디딤돌 삼아 <웰컴 투 동막골>은 이제 더욱 색다르고 과감한 방식으로 2005년의 말을 전한다.

전후의 냉전시대에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었다면 전쟁 중에는 “공동수호구역”인 동막골이 있었고, <태극기 휘날리며>가 한국전쟁 당시의 아픔을 이야기 했다면 <웰컴 투 동막골>은 이제 그 속에서도 있었던 가슴 뭉클한 미담과 치열했던 전쟁 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의 따스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⁴⁸⁾

2. 지금 현재 전쟁 중이라면 학습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게 한다.

3. 한국전쟁이 한국사회·문화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인 의미 등에 대하여 학습자와 이야기해 본다.

▶ 읽기 후 활동

1. 위 사진은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포스터이다. 앞에 봤던 한국 전쟁사진과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 해 본다.

2. 전쟁 때문에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 해 본다.

3. ‘금반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명선이의 전쟁 전 삶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삼촌과 동네사람들, ‘나’의 부모님이 ‘금’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4. 1950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한다.

48) 박선옥(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사회·문화 이해와 표현』, 도서출판 역락.

4) 실제 단원 구성

20과 한국의 소설 '기억속의 들꽃' 을 배워요.

준비합니다.



- 위 사진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에 봅시다.
- 사진 속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에 봅시다.

해 봄시다.

1. 우리가 배울 문학 작품은 ‘기억속의 들꽃’ 입니다. 들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2. ‘들꽃’ 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3. 이글의 제목을 왜 ‘기억속의 들꽃’ 이라고 했을까요?

읽기

♠ 다음은 ‘기억속의 들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아요.

또 한바탕 위험한 곡에 끝에 기어코 그 쥐바라송이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획 불어 명선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송이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싹누런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 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달래 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애기가 닿아도 명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 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난 갔던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땀을 해주어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자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놓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양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며 광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냈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은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 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엇가락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유로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툴두툴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뼘 한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엇다.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가불렀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쥐바라송이 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지옥의 가장귀를 타고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이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시 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끝으로 칭칭 동여맨 자그만 형갱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치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 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갈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단어와 표현

대궁	씻누런	흙탕물	해바라기	도리질	침묵	국방군	인민군
콘크리트	폭음	비명	동강	강심	들꽃	한적한	겁쟁이
가장귀	꼬부라진	칭칭동여맨	형갱	잡죄는	긴장	경풍	송두리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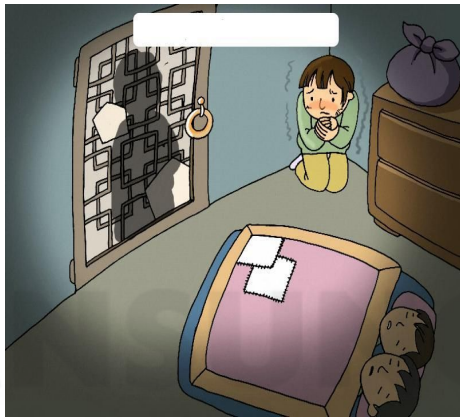
함께 생각해 보아요

1. 아래 그림을 보고 순서대로 쓰세요.

1. ()



2.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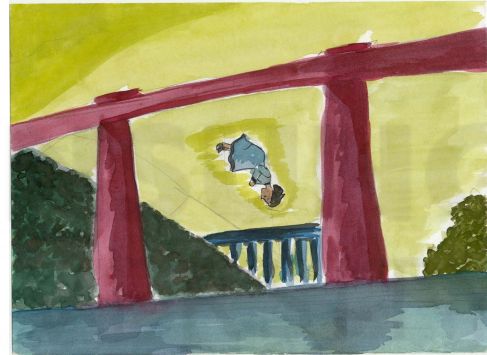
4. ()



5. () 6. ()



7.() 8. ()



2. 위 글에서 ‘금반지’와 ‘들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반지	들꽃(쥐바라송곳)

3. 이야기 속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6.25전쟁		사회상	
--------	--	-----	--

4. ‘기억속의 들꽃’이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글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읽기 전	읽은 후

더 알아보아요.

1. 명선이를 보는 사람들의 행동은 각각 다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성격을 추측해 보세요.

등장인물	명선이를 대하는 태도	성격
‘나’		
어머니		
아버지		
명선이의 숙부		

2. 명선이의 행동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명선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	그렇게 행동한 이유
상대방의 밑에 깔리면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 싸움에서 이긴다.	
남자아이처럼 옷을 입고 행동한다.	
숙부가 왜 죽이려고 했는지 묻는 ‘나’에게 경계심을 보인다.	
평소와 다르게 들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며 머리에 꽂는다.	
끊어진 다리의 철근 끝에 금반지를 숨긴다.	

명선이를 생각하며

1. 전쟁 중에 들꽃처럼 사라진 명선이를 생각하며 편지를 써 보세요.

명선이에게



2.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다면 나의 생활은 어떨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을 배워요

- 다음은 한국전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포스터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배운 ‘기억속의 들꽃’ 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2. 한국 전쟁에 관한 다른 작품을 찾아 읽어보고, 전쟁이 한국사회·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3. 고급의 경우 : 「그 여자네 집」

「그 여자네 집」은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은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한국의 아픈 역사인 일제 강점기 징병과 정신대의 문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우리의 아픈 과거이지만 문학 속에 역사적 사실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겪었을 아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학습자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와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의 여러 문학 작품을 폭 넓게 읽고 이해하여 한국인에게 느껴지는 정서인 ‘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여자네 집’의 모습과 마을의 모습을 계절에 따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소재는 문화교육의 좋은 소재가 되리라고 본다.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은 김용택의 시를 읽은 서술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과거 회상의 구조로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격동적 근·현대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만득이와 곱단이의 가슴 저미는 사랑과 이별, 이와 관련된 분단 현실의 비극과 아픔, 그리고 일본의 천인공노할 제국주의적 폭력에 대한 분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가 북한 동포 돕기 모임에서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을 애송시로 낭송하게 되면서 옛날 고향에서의 만득이와 곱단이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시작한다. 만득이와 곱단이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 나가던 중 만득이가 징병으로 끌려간다. 그때 마을 처녀들 또한 정신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곱단이 부모는 이를 피하기 위해 딸을 측량 기사에게 시집보낸다. 시간이 지나 만득이는 무사귀환하여 동네 처녀인 순애와 결혼하게 된다. ‘나’는 만득이를 실향민 군민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만득이 아내인 순애로부터 만득이가 아직도 곱단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게 된다. 순애는 지병으로 죽게 되고, 그 후에 정신대 할머니 위로 모임에서 우연히 만득이를 만나게 된 ‘나’는 만득이로부터 순애의 하소연에 대한 해명을 듣게 된다.

「그 여자네 집」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이 절정에 달했던 1940년대(일제 강점기

말)를 배경으로 한다. 징병, 징용, 정신대, 양식 공출 등은 작품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그중에서도 징병과 정신대는 남녀 주인공이 이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러한 요소는 이 작품의 특징인 현실과 인물간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현실과의 갈등에서 등장인물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 인물들이 현실과의 갈등에서 패배하고 체념해 가는 모습은 작품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인 민족사의 수난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에 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언어교육

학습목표 :

- 듣기가 사회, 문화적 과정임을 알고,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 반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듣기와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들으며,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듣는다.
-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
-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한다.
-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가. 흥미 및 동기유발 준비단계

ㄱ. 제목과 관련된 질문하기

한국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면 이야기해 보게 한다.

학습자가 읽어본 소설 중 생각나는 소설을 묻는다.

ㄴ.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작품 제목 ‘그 여자네 집’하면 떠오르는 것을 묻는다.

나. 수업 중 활동 단계

ㄱ. 텍스트 전체내용 이해하기

‘그 여자네 집’의 전체 구조를 정리해 보자.

이 논의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의 도입 부분인 김용택 시인의 시 ‘그 여자네 집’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 만득이와 곱단이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기대
- 아름다운 행촌리에서 사랑을 키워 가는 만득이와 곱단이
- 질병에 끌려가는 만득이와 정신대 강제 동원으로 불안한 마을
-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 원치 않은 혼사를 올리는 곱단이
- 살아서 돌아와 순애와 결혼하는 만득이

ㄴ. 어휘 및 문형 연습

다. 마무리 단계

만약 만득이와 곱단이가 일제 강점기가 아닌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고 글로 써보자.

2) 문학교육

학습목표 :

-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 읽기 전 활동

다음 사진을 보며 작품의 내용을 짐작해 보고, 서로 이야기 해 보자.



- 주어진 사진을 보며 주인공의 모습과 이야기를 상상해 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읽기 후 활동

1. 작품 내용 파악하기

1) 만득이가 좋아하는 작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 2) 마을 사람들이 두 인물의 사랑을 좋게 바라본 이유는?
- 3) 만득이와 곱단이가 헤어지게 된 계기는?
- 4) 만득이가 곱단이와 결혼하지 않고 군대에 간 이유는?
- 5) 곱단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시집간 곳은?
- 6) 작가와 만득이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가?
- 7) 만득이의 부인이 그가 아직도 곱단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3가지는?
- 8) 만득이의 부인 사후 작가와 만득이가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가?

3) 문화교육

학습목표 :

- 작품을 읽는 이에 따라 수용이 다를 수 있고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 읽기 전 활동

한국에는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다. 작품 ‘그 여자네 집’ 본문 중에는 계절을 눈에 보이듯 표현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찾아 읽고 한국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읽기 후 활동

한국 소설을 읽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줄거리를 이야기 해 보게 한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있다면 말해보고, 식민지였던 국가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게 해 본다.



4) 실제 단위 구성

.....

20과 한국의 소설 ‘그 여자네 집’ 을 배워요.

준비합니다.



- 위 사진은 책으로 출간된 ‘그 여자네 집’ 책표지입니다. 책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의 소설인지 상상해 봅시다.

- 여러분은 ‘일제 강점기’ 에 대해 알고 있나요?
식민지였던 국가에 대해 말해 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해 봅시다.

1. 글의 제목인 ‘그 여자의 집’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떠올렸습니까?
이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2.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계절에 대해서 쓰고 그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서 써 보세요.

읽기

♠ 다음 글을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 보아요.

: <그 여자네 집> 원문 대신 줄거리를 요약해서 실었다.

‘나’는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을 생각하다가 곱단이와 만득이의 옛날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 곱단이와 만득이는 마을의 마스코트였다. ‘연애건다’는 것을 상스럽게 생각해 온 마을 어른들도 곱단이와 만득이를 두고서는 서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두 젊은이가 짝을 이룬다면 얼마나 예뻐까 기대하곤 했다. 마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두 사람은 서로 애절한 사랑을 키워왔고, 두 집안에서도 양가의 젊은이들을 어여뻐 여기며, 당연히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곱단이는 꽃처럼 예뻐고, 만득이는 온 마을 젊은이들을 주물락 펄락 하는 똑똑한 젊은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을 순탄치 않게 만든 것은 바로 만득이에게 떨어진 징집 영장이었다. 일제에 징병되어 떠나게 된 다른 젊은이들은 씨라도 남겨 두려고 징집 나가기 전 결혼을 서두르는 데에 반해 만득이는 오히려 결혼을 미루자고 곱단이를 설득한다. 순수한 시대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약없는 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곱단이를 과부 만들지 않으려는 만득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안타까워하고 또 기특해한다. 곱단이도, 곱단이네 식구들도 모두 함께 만득이를 기다리지만, 그런 곱단이를 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정신대 모집이었다. 정신대를 면하기 위해 숨었던 처녀들이 당한 끔찍한 화를 들은 곱단이네 식구들은 곱단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집보낼 궁리를 하게 되고, 곱단이네 오빠가 데려온 사윗감의 재취자리로 곱단이를 넘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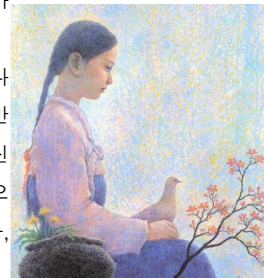
삼팔선이 그어지고서, 곱단이가 시집간 신의주는 영영 갈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리고, 시집간 곱단이는 친정에 한 번 와보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하게 된다. 징병에서 돌아온 만득이는 같은 마을의 순애와 결혼을 하고, 누이가 잡아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간다.



세월이 지나서 곱단이와 만득이의 일들을 다 잊고 있던 나는 친척 어른이 가신다는 고향 군민회 모임에 따라나서게 되고, 거기에서 우연히도 장만득 씨와 순애 부부를 만나게 된다. 처음에 잘 알아보지도 못했던 터라 별 감흥 없이 돌아섰는데 뜻밖에도 순애가 친근하게 연락을 해 와서 나는 순애와 곧잘 만나는 사이가 된다. 그런데 순애가 나를 붙잡고 털어놓는 것은 온통 여전히 곱단이만을 가슴속에 품고 산다는 장만득 씨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순애가 집요하게 그 이야기를 붙잡고 늘어지는데다가 사실 순애가 하는 이야기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운지라 나는 곧 이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장만득 씨가 불쌍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의 부음이 들려 나는 그녀의 장례식장을 찾게 되고, 거기에 놓인 터무니없이 젊은 영정 사진을 보고서, 곱단이에 대한 그녀의 질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삼 년 후, 정신대 할머니를 돕는 모임에 나갔다가 장만득 씨를 만난 나는 여전히 그가 곱단이를 못잊고 있구나 싶어 벌컥 화를 낸다. 그러나 장만득 씨는 곱단이에 대한 이야기는 순애의 오해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왜 이 모임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전쟁이 준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들도 모두 전쟁의 피해자, 일제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만득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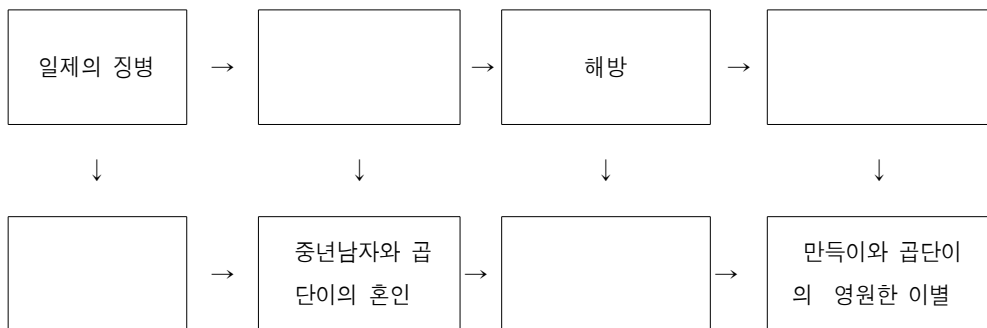
단어와 표현

애뜻한 징집 영장 순수한 기약 과부 헤아리다 정신대
삼팔선 생이별 군민회 감흥 품다 집요하게 늘어지다 뜻밖에
부음 장례식 터무니없는 영정사진 벌컥 피해자 오해

함께 생각해 보아요

1. 글의 중심 내용을 순서대로 써 봅시다.

2. <그 여자네 집>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을 차례대로 써보세요.



3. 아래 사진은 주인공 곱단이와 만득이의 모습입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랑 이야기’ 를 만들어 보세요.



♥ 사랑 이야기 ♥

더 알아보아요.

1. 곱단이는 만득이와 헤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곱단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곱단이가 만득이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_____에게

2. 만약 만득이와 곽단이가 일제 강점기가 아닌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 다음은 소설 ‘그 여자네 집’ 과 주제나 배경이 같은 작품입니다.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보고 한국 현대사에서의 전쟁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가. 「수난 이대(受難二代)」, 하근찬

나. 「학마을 사람들」, 이범선

한국을 배워요

1. ‘그 여자네 집’을 읽고 한국의 계절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써 보십시오.

2. 한국에서는 과거에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과거의 결혼과 현재의 결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V. 결 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학습 목적도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대학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목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국내 대학(원)으로의 유학이다.

이에 학습자들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자유로운 언어소통 능력만으로 유학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지도하던 기존의 목표 외에도 문화지식도 함께 요구하게 되었다. 학습자의 요구대로 언어와 문화를 함께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문학작품이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학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상황에 따른 대화나 문맥에 따른 문장의 구조나 시제 등 문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언어 학습의 좋은 자료임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문학작품은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 한국의 문화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제재이다.

문학작품 중 소설텍스트는 세상과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설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 졌든 그 속엔 세상이 있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고, 인물과의 갈등과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이 있다. 소설을 해석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소설은 다만,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 졌을 뿐 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문학텍스트가 언어, 문화교육 자료로써 좋은 소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절한 작품의 선정과 문학교육의 실제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 7차 국어교과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 적절한 작품을 선정하고, 국어과 교육내용 체계와 목표를 토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안을 구성해 보았다.

먼저 I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II 장에서는 본 논의의 기본 자료가 되는 제 7차 국어교육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그 중 먼저 국어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교육내용의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 텍스트를 발췌하여 보았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발췌한 현대소설 텍스트 중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기존 한국어교육 연구자에 의해 논의 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와 부합하는 언어자료로서, 문화자료로서, 문학 자료로서 활용이 높은 작품을 최종 선택하였다. 다음은 선택된 소설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적절한 급별 위계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 본 국어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중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내용체계를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비교하여 선별하였다.

IV 장에서는 초급·중급·고급에서 각각 1편씩을 선정하여 언어교육내용, 문학교육내용, 문화교육내용을 설정하여 보고 실제 단원을 구성하여 보았다.

초급 작품으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하여 이제 막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학습자에게 한국의 교실문화 및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중급 작품 「기억속의 들꽃」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들꽃처럼 살다간 명선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적 배경이 작품의 인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쟁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학습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급 작품 「그 여자네 집」은 중급의 작품 「기억속의 들꽃」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이다. 이 작품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으로서 좋은 소재이다.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학작품을 매개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사상과 정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교류한다면 학습자의 언어능력 뿐 아니라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의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본 논의에서 국어교육의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성취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이는 한국어교육의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이 언어 교육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 자신들의 학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교육부(1999), 7차 국어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정보 디지털 자료실.
교육부(1999), 국어과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정보 디지털 자료실.
교육부(2000),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정보 디지털 자료실.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05]
강영미 외(2009), 중학교 2-2 교사용 지도서, (주)비유와상징.
김영선 외(2009), 중학교 국어 3-2 교사용 지도서, (주)비유와상징
강현아 외(2008), 중학교 국어 1-2 교사용 지도서, (주)비유와상징.
김윤식 외(2002), 고등학교 문학 (상) (하) 교사용 지도서, (주) 도서출판 디딤돌.
권오주 외(2009), 중학교 국어 3-1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
김대행 외(2002),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육인적자원부.
김대행 외(2006), 고등학교 논술, 대한교과서(주).
김세곤 외(2009), 초등국어 4-1 교사용 지도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김세곤 외(2009), 초등국어 5-1 교사용지도서, (주) 도서출판 디딤돌.
김세곤 외(2009), 초등국어 6-1 교사용 지도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문혜경 외(2009), 초등국어 4-2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송주연 외(2009), 중학교 국어 2-1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
이인우 외(2009), 초등국어 6-2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임동원 외(2009) , 중학교 1-1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
정훈교 외(2009) 초등 국어 5-2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이석호 외(2006),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꿈을 담은 틀.
우한용 외(2002), 고등학교 문학 (상) (하) 교사용 지도서, (주) 두산.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초급1, , 경희대학교 출판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초급2, , 경희대학교 출판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중급1, , 경희대학교 출판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중급2, , 경희대학교 출판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고급1, , 경희대학교 출판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고급2, , 경희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1,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2,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3,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4, 문진미디어.
성균관어학원 (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균관어학원 (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균관어학원 (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균관어학원 (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균관어학원 (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균관어학원 (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1 ,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2 ,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3 ,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4 ,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5 ,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6 , 연세대학교 출판부.

2. 연구논저

- 강정민(2000), 「총체적 언어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표현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 구인환 외(1998), 『문학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 구인환 외(1998), 『문학교육론』, 삼지원.
- 권택영(2000),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 김대행(2001),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동환(2008),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31집, 국어교육학회.
- 김동환(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 35집, 국어교육학회
- 김민애(1993), 「쓰기 지도를 위한 과제 진술 방법연구」, 『한국어교육 실습론』,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보경(2002),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해옥(2005), 『문학교육과 어휘교육』, 국학자료원.
-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법과 실제』, 방송대학교 출판부.
- 문영선(2001),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민현식 외(2005), 『한국어교육론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 민현식 외(2005), 『한국어교육론 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문화사
- 박선옥(2005), 『한국 사회·문화 이해와 표현 I』, 도서출판 역락
- 박영목 외(1995),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박영순(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도서출판 월인
- 박창(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 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주철(200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교육의 이론과실체』, 커뮤니케이션북스.
- 성기철(1998),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회』
- 우한용(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의 효용」,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안경희(2003), 「수필을 통한 한국어교육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한국문화사.
- 윤 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유경(200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5차 춘계학술대회.
- 이재석(2006),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한국어교육 석사논문,
- 조옥영(2004), 「초급단계 학습자를 위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은정(2002),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대연(2003), 「쓰기교육의 교수학습」, 『한국어교육론 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현섭 외(1996),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 홍서연(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분류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2005),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부 록】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

-듣기-

<5학년>

- (1) 등을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 (2)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 (3)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 (4) 상대의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 (5) 끝까지 듣는 태도를 지닌다.

<6학년>

- (1) 듣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 (2)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 (3)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듣는다.
- (4) 말하는 이가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 (5) 여러 가지 매체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듣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 (1)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2)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듣는다.
- (3) 내용의 짜임을 파악하며 듣는다.
- (4)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듣는다.
- (5) 메모하며 듣는 습관을 지닌다.

<8학년>

- (1) 듣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2)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며 듣는다.

- (3) 내용을 종합하여 듣는다.
- (4) 들은 내용의 응집성을 판단한다.
- (5)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1) 듣기가 사회· 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 (2)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 (3) 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 (4) 말하는 이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 (1) 강의나 발표를 듣고 목적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한다.
- (2)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 (3) 사회 방언을 듣고 언어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 (4)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말하기-

<5학년>

- (1) 말할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안다.
- (2) 조사나 관찰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 (3)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 (4)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 (5)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6) 책임감 있게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6학년>

- (1) 말하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 (2) 면담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 (3)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 (4)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 (5)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7학년>

- (1) 말하기와 듣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 (3)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 (4)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
- (5) 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학년>

- (1)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2)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
- (3)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 (4)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
- (5)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1) 말하기가 사회 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 (2) 화제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의할 말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 (3)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 방식을 조절하여 말한다.
- (4) 상황에 따라 반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말한다.
- (5)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 (1)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 (2) 자신과 배경 지식이 다른 청중에게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보고한다.
- (3)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4)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
- (5)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읽기-

<5학년>

- (1) 읽기 상황에는 글의 종류, 읽기의 목적과 방법 등이 관련됨을 안다.

- (2)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3) 사실과 의견을 표현한 부분을 구별하며 글을 읽는다.
- (4)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글을 읽는다.
- (5)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
- (6)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 알아보며 글을 읽는다.
- (7)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 (8) 도서관에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습관을 지닌다.

<6학년>

- (1) 읽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 (2)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읽는다.
- (3) 글을 읽고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 (4)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글을 읽는다.
- (5)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6) 글에 나오는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7) 다양한 읽을거리를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 (1) 읽기와 쓰기의 공통점을 안다.
- (2)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 (3)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4)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 (5)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는 태도를 지닌다.

<8학년>

- (1)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2)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며 글을 읽는다.
- (3)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하며 읽는다.
- (4)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5) 읽는 글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 (6) 여러 종류의 사전을 글 읽기에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1) 읽기가 사회 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 (2)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 (3)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을 읽고, 주제나 관점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한다.
- (4) 읽은 내용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파악한다.
- (5)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10학년>

- (1) 사회적 규약을 담은 글의 특성을 알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한다.
- (2)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을 읽고 사건의 개요와 판단의 취지를 파악한다.
- (3) 여러 글을 읽고, 전제나 가정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다.
- (4)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 질문 전략, 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
- (5) 인기 도서를 읽고 책의 가치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쓰기-

<5학년>

- (1) 쓰기 상황에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이 관련되어 있음을 안다.
- (2)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글을 쓴다.
- (3) 조사는 관찰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글을 쓴다.
- (4)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 (5) 분석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 (6) 예시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 (7) 비유의 방법으로 글을 쓴다.
- (8)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찾아 고쳐 쓴다.

<6학년>

- (1) 쓰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 (2) 면담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글을 쓴다.
- (3)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여 글을 쓴다.
- (4)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 (5) 사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글을 쓴다.
- (6)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문장을 고쳐 쓴다.
- (7) 쓰기의 방법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7학년>

- (1) 말하기와 쓰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 (3)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글을 쓴다.
- (4)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 (5) 주제를 벗어난 내용을 고쳐 쓴다.
- (6) 글을 자주 쓰는 습관을 지닌다.

<8학년>

- (1) 쓰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2)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글을 쓴다.
- (3) 일관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 (4) 문법에 맞게 글을 쓴다.
- (5)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쓴다.
- (6) 정확하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1) 쓰기가 사회 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 (2)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한다.
- (3)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조직 방식을 조절하며 글을 쓴다.
- (4)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조직 방식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 (5) 독자, 주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 (6) 효과적인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 (1)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주변 인물에 대한 전기문을 쓴다.
- (2)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나 도표 등의 자료를 해석하는 글을 쓴다.
- (3) 시사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서평을 쓴다.

- (4) 청중이 고유하고 있는 체험, 사고, 가치를 고려하면서 식사문을 쓴다.
- (5)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을 쓴다.

-문학-

<5학년>

- (1) 문학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이해한다.
- (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4)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쓰고, 그 의도와 효과를 설명한다.

<6학년>

- (1)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듣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 (2)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다.
- (3) 문학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쓴다.
- (4)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7학년>

- (1) 소통 행위로서의 문학의 특성을 안다.
- (2)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 (3)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 (4) 작품 속에 드러나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 상황을 이해한다.
- (6) 작품에 드러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의 인물의 행동을 파악한다.
- (7)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학년>

- (1) 작품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안다.
- (2)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 (3) 작품이 누구의 눈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4)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 (5)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과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한다.
- (6) 여러 갈래의 글을 쓴다.
- (7)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9학년>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안다.
- (2)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 (3)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 (4)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한다.
- (5)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 (6)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
- (7) 작품 세계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 (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 (2)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
- (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 (4)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 (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Scheme to mak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Modern Novel into Theme and on Teaching-Learning Method

Kim, Yang-Su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tilize Korean language has great value in that it enables the learning of language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for learners to try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In the respect, all sympathize for the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tilize literature, but it can be said that concrete category or contents systematic. for it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real situation, in case that the learner meets with literary work which is not suitable for real power of Korean language, it is involving risk to lose will for learning of Korean language.

Thus, in case of choosing literature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user, establishment of state to be systematic and clear than any other field will have to be preceded.

In this study, I try to handle real parts to be 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tilize literary work. The direction may be classified into 2 kinds greatly. Then, one is to make text into rank, and another is fixing of teaching chief-point.

There was the discussion of a certain degree for making tex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tilize literature into rank, but question for the propriety is not being stopped. As for this, that standard for text and social mutual agreement for rank nature were not tried may be counted as the greatest cause.

In this discussion, I tried to choose method to quote current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result material of such social mutual agreement.

As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I established adult students studying abroad who are preliminary university students(graduate school students) to learn Korean language for the purpose of going on to university as study subject.

In case of students studying abroad, as for the studying goal of Korean language, literature ability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reading text or literature made with Korean language and to be able to write creative writing as well as language ability and sociocultural ability is necessary. Improving literature as language, literature as culture, and literature as literature itself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tilize literary work for these may foster reading related to diverse cultural subjects or major to get to meet in university life or understanding for literary work and may improve the integrated abi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uch as speaking of announcement and discussion etc. or ability to be able to write report and thesis etc.

If making literature as language data is linked to diverse and interesting language activity and cultural activity of period or place etc. to be background of work and they understand and appreciate literature as literature itself and feel deep emotion, study and interest for Korean literature will be help for Korean life and may be base knowledge for understanding university lessons.

In this thesis, I chose the work to be proper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ing around the novel of the 7th national language textbook, established the education goal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on the basis of system and goal of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subject and tried to compose the plan for

real teaching-learning.

First,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 examined existing study on the basis of necessity and goal of this study and mentioned the range and method of study.

In the chapter 2, I will examine the 7th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to be the basic data of this discussion. Out of it, I examined the achievement standard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literary education contents of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and extracted modern novel text being recorded from textbook of the 5th grade in primary school that novel appears on a full scale and to textbook of the 1st grade in highschool.

In the chapter 3, I chose the work to be suitabl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out of modern novel text extracted from chapter 2. As for choice standard, I chose the work that application is high as language data, as culture data, and literature data to correspond with this study finally, on the basis of standard being discussed by existing education researcher of Korean language. Next, I did the work to make into rank by grade which is suitabl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the basis of chosen novel text.

And, I selected contents system to be 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out of education contents of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which was examined in preceding chapter by comparing with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chapter 4, I tried to establish contents of language education, contents of literature education, and contents of culture education after choosing by 1 volume from the works of primary grade, intermediate grade and high-grade, and tried to compose real unit.

With primary grade works, I composed study contents, so that it may be help to Korean classroom culture and Korean life for primary grade learners who started life in Korea through our distorted hero.

In intermediate grade work, [field flower in memory], we will be able to have

time to try to think which influence period background has on work character and how Korean society changed due to war with learners, through the story of Myoung-sun who died after living like field flower due to Korean Civil War.

High-grade work, [Home of the Woman] may be referred to as work on extension of intermediate grade work, [Field Flower in Memory]. Period background of this work is up to now via Korean Civil War from compulsory occupancy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work is good material as culture education as well as language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s historical situation and cultural element of Korea Harmonize.

Literature has power to move the mind of people. I believe that dialogue with true open mind as well as language ability of learners will open, if foreigner learner understands Korean thought and emotion and exchanges mutual culture and feeling through the medium of literary work.

There is unreasonableness in establishing education contents and achievement goal of Korean language on the basis of contents system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this discussion, but I hope that this may be one foothold for establishing more systematic and concret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 hope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may be linked to Korean language learner's own learning without stopping as only language education, through this study.